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시선

(看見－ 한국어번역논문)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中 科

郭 智 榮

2017年 12月

# 시선

(看見- 한국어번역논문)

指導教授 宋 咳 宣

郭 智 榮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 年 12 月

郭智榮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 成 植



委 員

金 中 燮



委 員

宋 咳 宣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7 年 12 月

<시선>

**제2장: 뜨거운 맥박이 뛰는 것은 살아 있음을 말한다.**

2003년 4월 17일, “뉴스조사”에서의 첫날 밤 9시경에 프로듀서 장지에게 전화 걸었다.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우리 지금 사스 관련 회의하고 있어.”라고 장지에게 말했다.

“저도 하고 싶어요.” 라고 나는 대답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은 이미 몇 개월 동안 빈번히 토론된 주제였다. 초기에 매체에서는 당황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4월이 되니 집 아래 전병을 파는 아줌마도 전병자전거에 반란근(板藍根)<sup>1)</sup>을 한 봉지 걸어 놓았다. 나와 마주치면 자전거를 멈추고 “방송국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라고 물어봤고 나는 병어리처럼 말을 잇지 못 했다. 속만 태우고 참여는 못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내 아이가 나한테 “엄마는 사스 때 뭐 하고 있었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엄만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라는 대답은 도저히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장지에게 전화를 끊고 소파에 던져놓은 핸드폰을 다시 집어 “저 지금 가도 돼요?”라는 문자를 그에게 보냈다. 그의 답이 오기도 전에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후에 도착해요.”라고 말했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사람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새로운 동료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이에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

1) 물에 타먹는 감기약

“현장에 가야지.”

이 프로그램의 구호는 “진상을 파헤쳐보자”였다.

그날 밤 회의에서 장원강 위생부 부장, 명취에능 북경 시장을 인터뷰하자고 했지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병원으로 가서 인터뷰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당시에는 안전 보호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 방호복도 없었다. 사무실의 야오언니는 우리가 걱정돼서 한 사람당 한 벌씩 재킷을 사주었다. 재질이 미끄러워 바이러스가 달라붙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 나는 옅은 노란색을 받았다.

방송국 소재지에서 의심 환자가 나와,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과 방송 파트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지난 프로그램을 재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을 우선순위에 놓기로 한 것이다. 공식적인 주제를 정하는 것은 잠시 중단되었다. 현장에 나갈 지 여부에 대한 지시 요청은 상사를 난처하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끼리 해결하기로 했다. 북경시 질병 예방 관제 센터에 가서 “저희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며 관계자들을 들볶았다.

책임자는 붐 마이크를 보더니 “털 달린 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네, 그럼 오디오 감독님은 들어가지 맙시다.”

책임자는 카메라를 보면서 “이건 소독이 안 돼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카메라 감독님도 들어가지 마요.”

기계는 모두 갖고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럼 저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전 소독해도 돼요. 마이크만 하나 옷 안에 꽂아주세요.”라고 나는 말했다.

“도움이 될까?”

“네.”

우리는 전염병학 조사담당자와 함께 수도의학대학교(首都醫科大學)부속 흥부외

과병원에 가서 그곳의 방호복을 입었다. 입원 구역은 빌딩이 아닌 길게 늘어선 단층 건물에 있었다. 유리문은 닫혀 있었고 여는 사람도 없었다. 조사담당자는 내 앞에서 걸었고, 힘을 줘서 문을 천천히 열었다. 몸을 옆으로 기울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었다. 나중에 편집장 차오언니가 말하기를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고개를 돌려 동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웃었다고 했다. 언니는 편집실에서 그 장면을 슬로 모션으로 계속 되감아 보았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문이 열렸을 때 앞이 캄캄한 것 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늘진 복도는 학교 복도와 같이 매우 길었고, 그 서늘함은 몸을 갑자기 물속에 담그는 듯했다. 복도에는 많은 창문이 있었고 모두 열려있었다. 소독등은 보이지 않았고 과초산 냄새도 나지 않았다. 심지어 리졸물의 냄새도 나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 통풍하는 것이 유일한 소독 수단인 것 같았다.

병실의 나무문은 짙은 초록색이었지만 색이 심하게 바랬다. 문을 열 때 “끼익” 소리도 났다. 들어오면 바로 병상의 침대 끝부분이 보였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고 열이 심하게 나는 듯했다. 얼굴을 고열 때문에 빛이 났고 목은 부어서 두꺼웠고 얼굴의 살들은 부풀어 있었다. 눈 아래에는 짙은 보라색 다크서클이 있었고 숨 쉴 때는 특이한 물소리가 났다.

“어디 사람이예요?” 조사담당자가 물었다.

“하얼빈.” 심한 동북 발음이었다.

“식구는 어떻게 돼요?”

“집사람.”

“전화번호는요?”

“집사람도 같이 걸려서 어제 죽었어.” 말하면서 할아버지는 갑자기 상반신이 들썩일 정도로 심하게 기침을 하였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가래 소리가 났다.

나는 할아버지와 1미터 떨어져 있었다. 난 숨을 참으려 했지만, 오히려 마스크

안에서 빠르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숨을 쉴 때 마스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코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곧 숨을 들이쉴 수 없을 것 같았다. 바로 뒤에 문이 있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몸이 말을 안 들으며 뒷걸음쳐졌다. 뒤돌아 도망치고 싶었다.

서른 몇 살의 조사담당자는 침대 머리맡에서 움직이지도 않았다. 키는 크지 않았고 할아버지 얼굴과 무려 몇 십 센티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 종이에 기록하는 데 방해 될까봐 눈가리개도 쓰지 않고 안경만 쓰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기침을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질문을 이어나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었다.

10분 동안 나는 그를 뚫어지라 쳐다본 다음에야 용기가 생겨 그곳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었다.

나갈 때 나는 다른 병상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의 목에는 가래 수건이 묶여 있었고 수건에는 더러운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종아리를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있었는데 정맥들이 온통 울퉁불퉁하게 드러나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 그는 우리를 보지도 않았다. 나는 멈춰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혼수상태에 빠지지도 않았고 눈도 뜨고 있었지만 어떠한 표정도 없었다. 그 후에 나는 수많은 절망한 얼굴들 속에서 그와 같은 공허를 보았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조사담당자가 제지했다.

이때서야 나는 내가 왜 계속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를 알게 됐다. 입원 구역에는 세 명의 환자 밖에 없었다. 의사도 간호사도 없었다. 신발 밑창이 시멘트 바닥과 마찰하는 소리도, 측정기가 돌아가는 소리도, 금속 트레이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다. 여기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당시에 흥부외과병원에는 청결 구역과 오염 구역이 없었다. 병실에서 나온 뒤 우리는 문밖 공터에서 방호복을 벗었다. 앉을 곳도 없어서 서서 벗었다. 나는 한 발로 뛰면서 신발 커버를 벗을 때 바지를 밟아 넘어질 뻔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천웨이 카메라 감독님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카메라를 들어 날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야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났다. 나는 내가 보



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나갔다. 아무도 나를 탓하지 않았다. 내가 더듬더듬 얘기를 했음에도, 마스크에 눌린 자국이 얼굴에 한 줄 한 줄 남았음에도..... “전염병 발생 상황 발표를 5일에 한 번에서 1일에 한 번으로 변경, 노동절 연휴 취소, 북경시(北京市) 감염자 339명, 감염 의심자 402명.” 4월 20일 기자회견 후 공포는 말벌처럼 “윙”하고 퍼져나가 사람들을 쏘아댔다.

시스템은 몇 번의 소리를 낸 후 쏘살같이 가동되어 의심 환자들을 대규모 격리시키기 시작했다. 해정위생원(海定衛生院)의 여의사는 방호복을 처음 입어봤다. 반쯤 입다가 다시 통을 들으러 가고, 통을 들고 있으면서 그녀는 뭘 해야 하는지 잊은 것처럼 작은 빨간 통을 들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우리 아이 한 살밖에 안됐는데, 한 살밖에 안됐는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차를 타러갈 때 의사들은 모두 걷지 않고 뛰었다. 때문에 우리도 따라 뛸 수밖에 없었다. 카메라 화면은 재난영화같이 흔들렸다. “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차에 올라탄 그들은 모두 말이 없었고 손목은 마스크를 묶기 위해 뒤로 돌리고 있었다. 묶고 좀 있다가 다시 풀어 더 세게 묶었다.

차는 중국농업대학교(中國農業大學) 기숙사 앞에 도착했다. 환자가 살던 곳이었다. 관리실에서 두 명의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은 사람이 나와 있었는데, 차에서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내려온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의사들은 그들 손에 마스크를 쥐어 주면서 “쓰세요.”라고 말했다. 그들은 넋을 잃으며 절대복종하는 자세로 마스크 두 개를 한 번에 썼다. 그들 중 뚱뚱한 관리실 사람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하얀색 간호사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익살스러움이었다.

환자가 살던 방은 2층에 있었다. 방역소독원들은 올라가서 문도 두드리지 않고 분무기로 소독약을 먼저 문에 뿌리기 시작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었는데 전신이 하얀 무리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광”하고 문을 닫았다. 몇 번의 노크가 있고 난 뒤 안에서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고 분무기

가 사람보다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꽃무늬 이불 위에, 벽에 걸린 장만옥 사진 위에, 분홍색 토끼 위에..... 과초산의 분자들은 방 안 가득 뿌려져 나왔고, 책상 위 아직 뜨거운 김이 나고 있는 라면 접시 안으로도 떨어졌다.

나중에서야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 울거나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 여자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에게 기차표를 건네주면서 "오늘 오후에 집에 가는 표인데.....환불해 줄 수 있나요?"라고 말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기차표를 받고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갈 때쯤 그녀들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따라 나오고 싶어 했다. 문이 닫힐 때쯤 그녀들은 얼굴을 무겁게 떨구고 곧 울음을 터트릴 것 같았다. 한 살짜리 아이가 있는 여의사는 다시 들어가 그녀들을 위로해주었다. 나는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여의사가 다시 병실에서 나오며 내가 뭘 물어볼지 아는 듯이 "나도 엄마예요."라고 나에게 말했다.

그때야 나는 천명의 질문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자신을 잇는다는 것이다.

721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간호사들이 위생원 소독차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40대 금색 테두리 안경을 쓴 남자 의사는 자동차 보닛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아무도 우리를 상관 안 해?"라고 말했다.

소독하러 간 사람은 해정구 위생원(海定區衛生院)을 갓 졸업한 청년이었다. 그는 의사 어깨에 손을 얹어 두드리면서 "물통 하나 갖다 주세요."라고 말했다. 청년은 과초산을 플라스틱 통에 있는 물속으로 천천히 부어 내려갔다. 등에 메고 있는 분무기를 열었을 때 기어가 저음의 소리를 내면서 움직였다. "비켜주세요."라고 그는 말했다. 노즐에서 색이 없는 물이 작은 분자로 흩어져 나와 기류를 따라 멀리 날아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라고 그는 말했다. 옆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

정되었다.

하지만 중환자실은 그가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카메라도 따라갈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끼고 있는 옅은 노란색 라텍스 장갑을 소매 쪽으로 당겨주었다. 장갑이 너무 작아 계속 흘러내려 손목 한 부분이 보였다. 그는 날 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이름도 모르고 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서로의 눈만 볼 수 있었다.

“노동절 후가 피크예요. 조심하세요.” 그는 말했다.

“네.”

그는 혼자서 분무기를 메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노동절 전에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떠났다. 북경이 이동출입 제한을 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밤에 비행기에 소독약을 뿌린다고도 했다. 북경은 하나의 큰 솔처럼 곧 뚜껑이 덮일 것 같았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음식을 사재기했다. 나는 집에 갈 수 없었다. 여동생 혼자 마트에 갔는데 뭘 살지 몰라 달걀 한 상자를 들고 집에 갔다.

“황”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직장, 학교, 매점, 유흥업소 모두 멈추고 문을 닫았다. 모든 일상생활이 뿌리가 뽑힌 것처럼 무너졌다.

우리는 응급센터에 있으면서 환자 이송을 도왔다.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옮기는 지도 몰랐다.

22일에 갑작스러운 임시 이송 임무를 받아 두 대의 구급차도 함께 출동했다. 창안거리는 텅 비어있었고 교통경찰조차 보이지 않았다. 기사 주씨는 금배(金杯) 봉고차에 우리를 태워 구급차 뒤를 열심히 쫓았다. 그해 더위가 늦게 찾아왔다. 길에 있는 개나리가 아주 답답한지 순금 색의 가지를 뒤죽박죽 밖으로 뺐었는데, 먼지투성인 황량한 거리를 더욱 부각시켰다. 낡은 봉고차는 창안거리(長安街)에서 시속 120으로 달렸다. 열어 놓은 창문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센 바람만이 내 얼굴을 때리고 있었다. 나는 평생 동안 매일 어떻게 질문을

잘 물어볼지 고민하고, 옷을 적절하게 입고, 익숙하고 바쁜 거리를 걸으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줄 알았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두 명이 하얀색 천 같은 거로 가려진 물건을 덜컥거리며 끌면서 뛰어오고 있었다.

깜짝 놀랐다.

그들이 그것을 구급차에 태우고 난 후에야 휠체어인 것을 알았다. 할머니가 그 위에 앉아 계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천으로 덮여져 있었다. 할머니는 감염자였지만 방호복도 심지어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은 채로 일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나오셨다. 몸에 덮여있는 하얀색 천은 병원의 침대 시트였다. 나를 격리 수단으로 삼으려고 급하게 임시방편용으로 가져 온 것 같았다.

환자들이 연이어 나왔다. 대부분 링거병을 혼자 들고 있었다. 세어보니 29명이었다. 그럴 리가 없다. 발표된 환자 수는 이렇게 많지 않았다. 다시 세어보았다. 29명이 정확했다.

환자를 이송하는 의사들 중 어느 누구도 방호복이나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장갑을 낀 사람도 없었다. 모두 파란색 외과 수술복이랑 얇은 파란색 마스크만 쓰고 있다. 나는 그 중 뒷사람 같은 사람을 붙잡았다. 바쁜 와중에 그는 "천징(天井)에 큰일이 났어요."라는 한마디만 했다. 나는 그가 북경대학교 부속 인민병원(北京大學附屬人民醫院)의 부원장 왕지산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일주일 후 그도 감염되었다.

밤에 호텔로 돌아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프로듀서 티엔허는 담배 파이프를 피면서 "<카산드라 크로싱>에서 본 것 같아. 기차는 위험한 곳을 향해 달리고, 기차 안 사람들 귓가에 쿵쿵 소리가 들리고 있어, 기차 밖 사람들이 창문에 못질하고 있기 때문이지."라고 말했다.

우리는 작은 호텔에서 지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받아준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문으로 들어오면 두 개의 얇은 줄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 특별히 엘리

베이더로 향하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셨다.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머무는 3층만 갈 수 있다. 우리가 돌아다닐까 봐 다른 층들은 모두 나무 목판으로 막아놓았다. 3층에는 우리 외에 다른 투숙객이 없었다. 텅 빈 복도 벽에는 자외선 소독등이 일렬로 놓여 있고 밤에는 반짝반짝 빛이 났다.

호텔 종업원들은 친절했다. 내 방에 전화를 걸어 “우리도 이제 없을 거예요. 모두 몸 잘 챙기시고 사람 수당 체온계 놓고 갈게요. 매일 재보세요.”라고 말해줬다. 평소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는 남자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그곳에 철사를 걸고 운동장이 딱 차도록 옷들을 걸어 말리고 있었다. 옷들은 햇빛 아래서 외롭게 바람에 몸을 맡겨 펄럭이고 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내가 입원실에 갔던 걸 알았다. 관리실에서 “잘 지내시죠?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최근에 집에 올 일 없으시죠?”라고 전화가 왔다. 이해한다. 영상을 찍으면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차를 방송국 남원 입구로 몰고 가서 테이프를 입구에 있는 수위실에 두고 나온다. 다른 사람이 테이프를 가져가고 소독을 한 다음 편집을 했다.

여동생이 물건을 가져다주려고 호텔로 왔다. 내가 작은 스피커를 하나 부탁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밤거리에서 3, 4미터 간격을 두고 나는 “내려놓고 가.”라고 동생에게 말했다.

동생은 어두운 가로등 밑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입원실에 가기 전에 우리는 부모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었었다. 나는 “너는 내가 입원실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물었었고, 동생은 “기자가 되지 않겠다면 그건 언니의 선택이야, 하지만 기자가 됐으면 가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권리는 없어.”라고 대답했었다.

어느 날 저녁 장지에는 뜬금없이 꽃을 한 다발 들고 호텔로 와서 자겠다고 했다. “아이고, 제작자님 요즘 같은 때 뭐 하러 오셨어요?”라고 말했지만 다들 속으로 챙길 사람만 한 명 더 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왜 왔는지 설명하지 않았고, 한 명 한 명 포옹을 해주었다. 남자들은 익숙지 않아서 꽃을 거꾸로 잡아당기면

서 굳어진 몸으로 상사의 다정함을 견뎠다.

그 후 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장지혜가 “그 팀이 초기에 방송국 남원에 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나한테 다른 사람의 안전은 왜 생각해주시 않느냐고 항의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음 그 순간 정말.....하지만 바뀌서 생각해보면 모두의 안전도 중요하죠.”라고 한 것을 보았다.

그는 우리가 심적으로 힘들어할까 봐 호텔에 와주었던 것이다.

기자가 이 일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남원에 가서 밥 먹었던 일을 전혀 기억 못 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애써 생각하다가 “그때는 남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라고 변명했다.

매일 아침 깨자마자 눈을 감은 채 배게 밑에 놓은 체온계를 겨드랑이 안으로 끼고 자는 등 마는 등 5분을 더 보냈다. 어차피 열이 나도 병원에 가야하고 안나도 가야 했다. 하루는 코에서 나오는 바람이 뜨겁게 느껴지고, 뜨거운 기운이 머리까지 올라와서 틀림없이 감염되었다고 생각했다. 눈을 감으면서도 어떻게 디지털 캄코더를 입원실에 갖고 들어갈 수 있을까 같은 생각만 했다. 그냥 죽기에는 아까우니까. 눈을 떠 체온계를 봤다. 36.5도였다.

어느 여자 사법 경찰은 사형장에서 이미 사형을 당한 죄수들의 사진을 찍는 일을 한다고 했다. 그녀는 무섭지 않다고 했다. 딱 한 번, 밤에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머리에 묻히고 거품을 낸 그 순간, 모든 죄수들의 얼굴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고 했다.

그녀의 말이 와 닿았다. 사스 때 나는 거의 공포를 느끼지 못했다. 공포보다 더 큰 감정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샤워기 아래 서서 찬물을 맞으며, 물이 살결을 타고 내려올 때 닭살이 나는 것을 보았다. 클렌징폼을 묻혀서 얼굴에 거품을 낼 때는 갑자기 사신이 내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맥박이 목에서 빠르게 뛰어댔다. 나는 혈관을 만지면서 이게 가장 원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 모든 재난 속에서도 따뜻한 맥박이 뛰는 것은 살아있음을 말한다.

한동안 우리 팀 모두 자기가 감염됐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병원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했다. 어떤 가루가 몸에 묻거나 콧구멍이나 입에 들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마치 말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보호인 것처럼.

방송국에서는 우리에게 5개 면역 글로불린 주사 지표를 배급해주었다. 당시에 굉장히 귀했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맞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사 주씨는 방송국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사를 받지 못하셨다. 주사는 그날 밤 8시에 맞기로 되어있었다. 그 후로는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6명 다 같이 맞으러 가지 않으면 다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전화들을 돌리며 주사 한 대를 더 얻으려고 애썼지만, 방송국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녹음 담당 리우창은 듣더니 “주사 하나로 싸우지 말자.”라고 말했다. 7시30분이 됐을 때 그는 방문을 걸어 잠갔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았다. 그와 오랜 친구인 천웨이는 날 살짝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가자, 애는 이래야 속이 편해.”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는 마침 공부차(功夫茶)를 끓여 놓고 있었다. 우리를 기다리면서 붐 마이크를 민간요법으로 소독하고 있었다. 여성용 검은 스타킹으로 마이크 털이 달린 곳을 덮는 것이었다. 담배를 입 꼬리 쪽으로 물고, 담배 연기 때문에 실눈을 뜨고 있었다. “괜찮아.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다음날 병원에서 여자 환자를 만났다. 그녀는 혼자 링거병을 들고 있었다. 천웨이가 카메라로 자기를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돌려서 의사한테 “자꾸 찍으면 마스크 벗어서 뽀뽀할 거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소리 내 크게 웃었다.

“9.11테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사람들은 예능 토크쇼를 다시 시작했다. 책상을 치면서 눈물을 참으며 계속 농담을 던졌었다. 나는 당시에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 사람이 웃을 수 있을 때는 쉽게 무너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응급실 안에 있을 때, 촬영 담당 샤오핑은 매일 예쁜 간호사에게 소독을 받으러 갔다. 그는 마스크를 끼고 크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속눈썹이 검어서 한 줄의 철사 같은 “철사 눈”을 가진 간호사를 가장 좋아했다. 멀리서 몰래 보고만 있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부끄러워한다. 철사 눈은 꾸짖는 듯이 “이리 오세요! 소독하게!”라고 그에게 말했다.

“난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라고 샤오핑은 말했다.

“죽는 거 안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며칠 전에 제가 담당한 두 명은 당신보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라고 비웃으면서 말했다.

“많이 좀 해주세요.” 그는 듣자마자 다가가서 말했다.

철사 눈은 한번 흘겨보더니 그에게 소독액을 팔팔 부어주었다.

“머리에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장난스럽게 그의 대머리를 가리켰다.

간호사는 바로 그의 머리에 소독약을 부었다.

그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빠르게 거칠어졌다. 아무도 없는 장안거리(長安街)의 차 안에서 그들은 나한테 담배 한 개비를 건네주며, 한 개비는 사스를 예방해준다고 말했다. 일이 끝나고 밥 먹을 곳을 찾는데 큰 식당들은 모두 문이 닫혀 있었고, 작은 호남(湖南) 음식점만 용감하게 문을 열고 있었다. 종업원들은 빨간 솜 저고리와 초록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손님이 없어 무료해 문 앞 공터에서 줄넘기하고 있었다. 우리 차를 보고 줄을 치웠다. 가장 매운 당나귀 간과(干鍋)를 산처럼 쌓아서 몇 그릇 내놓았다. 썩 생마늘, 고추, 마늘종을 각 한 그릇씩 달라고 하여 모두 간과(干鍋) 안으로 넣었다. 뜨겁게 달아올라 매운 거품이 나는 간과(干鍋)를 흰밥에 끼얹고, 생수를 한 번 더 끼얹어 주어 얼굴이 밥에 파묻힐 것같이 먹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머리에서 콩 만한 큰 땀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여기 냅킨 만장 가져다주세요.”라고 종업원에게 말했다.



한 접시 간과(干鍋)를 다 먹고 나에게도 백주를 한잔 따라주었다. 팀 사람들은 신강(新疆)에서 개기일식을 찍을 때를 말하기 시작했다. 하늘과 땅이 캄캄해져서 태양 중간에 빨간 점만 남았는데 보석같이 빛났다고 했다. 샤오핑은 사막에 카메라를 던져놓고 소리 내어 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사람 인터뷰 때 클로즈업을 해서 모니터에 눈만 남을 때가 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진실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라고 말을 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과 가까워졌다.

우리가 런민병원(人民醫院)에서 찍었던 일부 환자들이 수도의과대학 부속 유안병원(首都醫科大學付屬佑安醫院)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시작했다. 인터뷰하러 갔을 때는 정식으로 병실에 들어가서 찍을 수 있었다. 한 아줌마는 병실 침대에 기대어 있었다. 방호복을 입은 내 체형을 보고 "중국 중앙방송국에서 웬 아이를 보냈데?"라고 숨을 헐떡이면서 웃으면서 말했다.

"얼굴을 가리면 어려 보여요."라고 나도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지금 가장 뭘 하고 싶은지 물었고, 그녀는 밖을 보면서 "완치가 된다면 진짜 나가서 연을 날리고 싶어요."라고 대답했다.

샤오핑의 카메라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잡아주었다. 5월은 마침 성안이 봄이 되어 초목이 무성한 날이었다.

병실을 나와서 나는 주치의 명의사에게 "그분 상황은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명의사는 40대 여의사다. 웃을 때 봄바람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에 와서 밤에 잠을 안 잤어요. 잠들면 죽을까 봐 무서워서 계속 눈을 뜨면서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가다간 몸이 받혀주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제가 그 환자에게 3일만 주면 완치해 주겠다고 말했어요."라고 하며 여의사는 돌려 말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잘 만나지 못하고 관심

을 갖지 않았던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입원 구역에 있는 사람들, 건강한 우리 팀 남자들은 모두 명의사에게 마치 아이가 어른에게 기대하고 있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희생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라고 헤어지기 전에 명의사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요?”

“저는 하고 있어요.” 대답하면서 그녀는 우리를 위해 유리문을 열어주었다.

공터에서 장비들을 정리할 때 티엔허는 작은 디지털 캠코더를 꺼내 나에게 기슭 질문을 했다. “넌 사스가 무서워?”

“안 무서워, 난 사스를 증오해.”라고 대답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다.

병원에서 나올 때 마침 5월의 장밋빛을 띤 저녁노을이 물들어 있었다. 검고 축축한 늪은 느릅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밤에 스피커로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이건 왜 이렇게 듣기 좋을까? 라고 생각했다. 길을 걸을 때도 낡은 집들을 한 번 더 보곤 했다.

일이 끝나면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다. 북해(北海)에 가서 앉아있었다. 새장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바둑을 두면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 제기차기를 하는 사람들, 천엽을 먹는 사람들..... 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고 호수는 황량했다. 북적거렸던 이곳에서 비린 습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멀리서 호금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보니 파란색 면 셔츠를 입은 할아버지가 빨간색 페인트가 벗겨진 정자에 앉아, 무릎에 회색 천을 올리고 호수를 바라보며 호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호금소리는 재난 속에서 조금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듯했다. 우리는 어두워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방송 이름은 “사스 전투전” 이었다. 우리는 여관방 안에 모여 방송을 시청했다. 본지 10분 만에 너무 많은 전화와 문자가 들어와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방송이 나가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프로그램 시청률은 5.4%, 7천만 명이 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텔레비전 방

송의 위력을 느꼈다. “당신이 사스에 걸리면 저한테 시집와 줄래요?”라는 내용의 모르는 번호로 문자도 받았다.

순간 “지금 죽어도 몸에 실패라는 구린내는 남진 않겠다.”라고 생각했다.

샤오핑은 핸드폰을 보더니 왜 여론의 반응이 이렇게 뜨거운지 이해 못 한다고 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거 아니야?”라고 고개 들면서 말했다.

천명도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 칭찬도 하지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에게 “네가 할 것만 생각하고, 결과는 생각하지 마.”라는 말만 해줬다.

부모님은 산시(山西)에 계셔서 내가 입원실에 갔던 걸 모르고 계셨다. 엄마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져, 이웃집에서 마작을 두면서 내가 나온 방송을 보다가 손이 그대로 멈췄다고 했다. 이웃은 엄마가 울었다고 전해줬다. 하지만 엄마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엄마는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이제 뭐 할 건데?”라고만 물어보셨다.

나는 인민병원(人民醫院)에 다시 갔다. “천정(天井)”이라는 곳이 계속 신경 쓰였다. 4월 22일 환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천에 덮여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들 후 우리 차가 그곳을 지날 때 85년 역사를 가진 삼갑병원은 방금 전체 격리를 발표했다.

노란색 격리선 뒤에는 3명의 간호사가 텅 빈 계단에 앉아있었다. 그녀들은 파란색 간호사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고, 오후의 햇살 아래서 금방 감은 긴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앉아만 있었다. 가끔 손으로 앞에 있는 머리를 빗었다.

차는 병원 정문 앞에서 10분을 서 있었다. 샤오핑은 디지털 캠코더로 멀리서 그녀들을 찍었다.

인류와 사스의 가장 크고 가장 힘든 전투가 이 안에서 시작되었다. 4월5일부터

222명이 지속적으로 감염되었다. 93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포함하여 반 가까운 진료실 사람들이 감염 되었다. 진료 건물 북측에 있는 응급실이 당시 사스 발생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이었다. “천정(天井)”이 바로 이곳이었다. 나는 왜 이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저번에 찍었던 29명의 이송된 환자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 않아했다. 나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방송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다.

그때서야 나는 천명이 말한 “욕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응급실 주임 주취홍이 인터뷰 때, 그 29명의 환자는 모두 사스 감염 환자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검사 나왔을 때 그들을 엠블런스에 실어 북경을 빙빙 돌았다고 알려주었다.

9년 후, 2003년 그 사람의 인터뷰를 다시 보았을 때서야 그때 왜 말이 느리고 아무런 표정도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건 깊은 아픔이었다.

그를 다시 인터뷰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설득을 했다. “무엇을 판단하고 결론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듣고 느낀 것만 말해주시면 돼요.”라고 나는 말했다.

전화 건너로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에요.”라고 그는 답했다.

“네. 하지만 고통도 일종의 덜어냄 이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로입니다.”라고 나는 말했다.

주취홍은 나를 응급실 복도로 데려갔다. 몸을 숙여 사슬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었다. 오른손을 벽에 누르더니 형광등이 켜졌다. 창백한 빛이었다. 일반 교실만한 크기였다. 파란색 링거 의자 커버에는 모두 하얀색 글씨가 찍혀있었다. 4월 17일 목요일, 4월 17일 목요일.....

모든 침대 위에는 어지럽고 봉긋하게 뜯은 이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어떤 이불들은 침대에서 땅바닥으로 끌려져 있었다. 의자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거꾸로 눕혀져 있었다. 살기 위한 철수였다.

이곳이 바로 내가 전해 들었던 천징(天井)이었다. 4개의 건물 사이에 있는 공터, 건물과 건물 사이의 천징(天井)이었다. 덮개로 덮으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된다. 이곳을 링거 맞는 곳으로 정해, 열이 나는 환자들은 모두 이곳에 모여서 링거를 맞았다. 27개 침대는 주먹만 한 거리로 떨어져 있었다. 거의 붙어있었다고 보면 된다. 아침에도 등을 켜고 있어야 하고 통풍도 안 되고 창문도 없었다. 중앙 에어컨의 배출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배출구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다.

노랗게 바래진 진료기록들은 어지럽게 책상에 산처럼 쌓여있었다. 내가 1초 동안 머뭇거리는데 동안 주시홍은 슬프게 웃으면서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다. 진료기록에는 모두 “폐렴”이라고 적혀있었다. 그는 칠판을 손으로 가리키며 나에게 보라고 했다. 칠판에는 2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19명의 이름 뒤에는 모두 하얀 분필로 똑같이 적혀있었다. 폐렴 폐렴 폐렴.....

“사실 다 사스에요.” 그는 말했다.

환자들은 몰랐다.

“상황을 모르고 다른 병 때문에 링거 맞으러 온 사람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 같이 여기에 썩혀 있었죠.”

만약 내가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면 나는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으세요?”라고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그가 말을 할 때의 넋을 잃은 유순한 절망의 얼굴을 보았을 때 누가 내 심장을 꼬집는 것처럼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그와 그의 동료들도 이 안에 썩혀 있었다. 인민병원(人民醫院)은 93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사스에 걸렸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62명 중 24명이 감염되었고, 의사 2명은 순직하셨다.

나는 환자를 옮기는 날의 그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파란색 외과 수술복만 입고

있었다. 흥부외과병원에서 풀 세트 방호복을 입고, 전전긍긍하며 입원실을 들어가고, 응급센터로 돌아와 40분 동안 소독을 했다. 내 곁에 사람들이 고무장갑이 다 젖을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을 때, 이곳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천정(天井)에서 기본적인 방호복도 못 입은 채 20명이 넘는 환자와 함께 있었다. 나는 그에게 그동안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며칠 동안 거울을 안 봤어요. 나중에 봤을 때 수염이 다 하얘져 있었어요.”라고 대답했다.

니우샤오셔우는 30살 응급실 간호사다. 그녀는 계단에 앉아 강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전 매일 가서 방호복을 달라고 했지만, 마스크 한 장조차 못 얻어왔어요. 그래서 쓰던 것들을 큰 솔로 찌 다음,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게 제 탓인지 누구의 탓인지 모르겠어요.....”

주쉬홍은 나를 관찰실을 사스 입원실로 개조한 곳을 보여주었다. 나는 몇 개의 평범한 입원실밖에 보지 못했다. 머뭇거리면서 그에게 “청결 구역이랑 오염구역은 어디예요?”라고 물었다. 그는 바닥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줄 하나 그을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다시 그에게 “그럼 청결 구역이랑 오염구역은 어떻게 구분했어요?”라고 물었다. 주쉬홍은 침묵하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로요.”라고 대답했다.

“무엇으로 방호했어요?”라고 나는 물었다.

“우리는 정신적인 방호를 했어요.”라며 무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천정(天井)이 닫히면 그들이 안전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응급실 진료는 휴진 허가가 나오지 않아 계속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환자들은 계속 병원을 찾았고 진료와 격리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자들을 받았다. 열이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는 8363명에 달했다. 4월 22일 우리가 취재를 나오고 나서야, 환자 격리 시설이 갖춰진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에 환자들은 링거를 맞을 공간도 없어서 공터에서 맞기도 했다.

그는 나를 그 공터로 데리고 갔다. 의자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링거병은 나뭇가지에, 타고 온 자동차 백미러에 걸었었다. 의자가 부족하면 작은 의자를

가져왔다. 한 위생 부문에서 일하는 고위간부가 여기서 감염되었는데 집에서 아내와 아들도 감염시켰다. 입원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침상 1대만 얻을 수 있었다. 부부는 아들을 그 자리에 들어가게 했다. 부부는 열이 나서 온몸이 젖어 일어날 힘도 없이 떨면서 작은 의자에 앉아 링거를 맞았다. 나중에는 작은 의자에 앉을 힘조차 남지 않았다. 아들이 완쾌됐을 때 부부는 이미 하늘나라로 떠났다.

의자들은 아직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4월에서 5월 말까지 누구도 건들지 않았다. 파란색 페인트는 햇빛 아래 짙어 거의 초록색으로 퇴색되었다. 병원 대문 쪽에 내팽겨쳐 말을 못 하는 한 무리의 병어리들 같았다.

위생부는 벽 하나를 사이로 길 건너편에 있었다.

5월 27일 응급실 간호사 왕징이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문자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첫 번째 문자는 “창문 앞에 있는 꽃이 피었어요. 나 좋아질 거예요.”였다.

그는 아내의 병문안을 가지 못했다. 그저 지단병원(地壇醫院) 문 앞까지만 올 수 있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세상에서 부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매일 지켰다.

아내는 “돌아가요. 당신 쓰러지면 안 돼요.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본인의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마지막 문자는 “당신 빨간색 허리띠를 매세요. 올해는 당신의 본명년(本命年)<sup>2)</sup>이니깐요. 당신은 평안해야 해요.”였다.

그는 통곡하면서 문자를 읽어 내려갔다. 내 얼굴도 어느새 눈물로 범벅되었다. 샤오핑은 기자가 그래도 되냐는 듯 나를 찌러봤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

2) 자기 띠의 해.

그는 아직 아이에게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못 했다. 딸 따바오는 이제 겨우 여섯 살이었다. 가늘고 부드러운 짧은 머리와 흑백이 선명한 눈을 갖고 있다. 아이의 방 문 앞에 "엄마는 나를 사랑해요.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라는 글이 적혀있는 종이가 붙여져 있었다.

나는 왜 종이를 문 앞에 붙였는지 물어보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돌아오면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싶은 거 맞지?"라고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는 침대에 앉아 행운의 별을 접으면서 이 병 안에 별들이 채워지면 엄마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불빛이 어두운 곳에 서서 아이가 별 접는 것을 지켜봤다. 유리병의 입구는 둥글고 컷는데, 그 중 3분의 1이 채워져 있었다. 아이는 별을 천천히 접었다. 접은 별을 병 속에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손을 병 속에 집어넣어 조심스럽게 별을 올려놓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한번 봤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아이는 이미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있었다. 그저 누구에게도 자신의 슬픔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 뿐.

그 집에서 나와 우리를 태운 차는 이환(二環)을 달리고 있었다. 하늘 가득한 먹구름은 도시를 덮고 있었고 폭우는 금방 쏟아질 것 같았다. 차에 탄 사람 중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2003년, 봄과 여름이 바뀌는 시기였다.

9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사스 입원실에 들어갔던 기자"라고 부른다. 나는 그렇게 불릴 때면 자주 부끄러움을 느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천으로 덮인 환자가 내 옆으로 지나갈 때도, 매체는 여전히 "시민 여러분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나는 분명 무언가를 봤다. 하지만 희미하게 느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고 거기서 그쳤다. 나 자신이 그저 큰 시스템 안에 작은 나사인 것 같았다. 모



든 것은 스스로 알아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상함을 언뜻 느꼈지만 어떠한 지시도 받지 못했고, 내 방송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개만 돌리면 빠르게 잊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진짜 잊었다.

내가 만든 방송이 방영되고 난 후, 나와 같은 일은 하는 어떤 이가 나에게 “너희는 공포를 부추기고 있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때 내 옆에는 당시 <재경(財經)> 잡지 편집장 후수리가 앉아있었다. 그녀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기만이야.”라고 말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협화병원(協和醫院)입구에서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장지에는 사무실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차에 앉아서 30분을 기다렸다. 처음에는 농담하면서 수다를 떨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 말이 없어졌다. 티엔허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면서 “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나왔어요?.....네, 진짜요? 누구요?.....네, 여자가 한 명 있기는 해요.....”라고 말했다.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있었다. 몸을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맘속으로 욕을 한마디 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한번 찌르면서 “야, 의사가 너 백혈구가 낮아서 면역이 안 좋대.”라고 말했다.

우리 프로그램 방영이 끝났다. 봉고차는 목적지 없이 달리고 있었다. 아무도 집에 갈 생각이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일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었다. 장지에는 “어디 가고 싶어?”라고 물었다. 나는 어디든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 집에 갈 준비를 하였다. 작은 스피커에 Skinny Puppy의 노래를 틀어놓고, 높은 빌딩 창문 앞에 서서 텅텅 비어있는 북경을 내다보았다. 보다가 나는 몸을 돌려 헤드셋을 머리에 꽂고, 두건을 머리에 힘껏 묶은 뒤 음악 볼륨을 가장 크게 틀었다. 만약 누가 당시에 내 모습을 봤다면, 내가 미쳤

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춘 건 춤이 아니었다. 인간의 몸이 극도의 긴장이 풀린 후 아무렇게 뻗는 것이었다. 음악은 마치 어떤 사람이 칼날 위에 서서 폭풍우 속에서 소리치는 것과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두 팔과 다리를 벌려 아무렇게나 돌았다. 다쳤던 왼발을 의자 다리에 박았다. 칼이 찌르는 듯 아팠다. 사람은 이런 쾌감적인 아픔을 겪을 때 머리끝이 주뻗주뻗 선다. 일렉트로닉 음악에 나오는 인간의 것으로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금속을 거칠게 마구잡이로 긁는 것 같았다. 줄들이 갑자기 팽팽히 늘어났다 끊어지는 듯했다. 나는 눈을 떴다. 자유를 다시 얻은 작은 짐승처럼 이 새로운 세상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몇 달 후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매우 짧았다. "721 병원 아직 기억하세요?"

나는 대강 밑으로 뛰어 내려갔다.

"그때부터 저는 거리에서 당신의 눈을 찾고 있어요."

나는 바로 몸을 깨끗하게 세워서 앉았다.

"한번은 어떤 여자를 당신이라고 생각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그녀를 붙잡고 '당신인가요?'라고 물었는데 상대방이 놀라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당신을 본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당신인 줄 알았어요. 당신은 유명한 기자였네요."

그는 마지막에 "아마도 우습다고 느끼시겠죠? 저는 당신이 제 반쪽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라고 썼다.

샤스는 끝이 났다.

### 제3장 쌍성(双城)의 상처

“뉴스 조사”에 들어간 첫날 어떤 젊은 처녀가 날 보면서 웃었다. 이마 바로 위에 비스듬히 머리핀을 하나 꽂고 있었고, 귀에는 네다섯 개 찰랑거리는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이어폰을 끼고 어디를 가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미니스커트에 긴 다리, 재잘재잘, 말을 한마디 걸면 백 마디를 말했다.

23살인 그녀는 자기의 청춘을 증오했고 자신의 빨간 입술을 가장 거슬려 했다. “이래야 분위기 있어 보여요.”라며 항상 하얀색 립스틱으로 가리고 다녔다. 잘됐다면서 나는 그녀를 라오판라고 불렀다. 한동안 이 별명을 거부하더니 나중에는 그러려니 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는 우리 방송국에 무턱대고 찾아와 지원했다. 매번 상사가 질문하면 항상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라고 빠르게 말을 했다. 장지에는 그녀를 딸같이 생각하는 넓은 마음으로 방송국에 남겨둔 것 같다.

“저는 세 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고 두려운 게 없고 염치도 없어요.”라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아이고 이 아가씨야 네가 정말 손해를 본 적이 없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를 위해 이론적인 근거를 잘 찾는다. “귀신은 우둔함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바로 그 우둔이에요. 하하.”라고 그녀는 말했다. 한번은 그녀가 이런 소제를 가지고 왔다. 일주일 동안 초등학교 같은 반 5명의 아이들이 연속으로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살아난 아이들은 모두 침묵을 일관했다. 매체는 사이비 종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소제를 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지만 아무도 대꾸를 해주지 않아 마지막 보루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원래 지나치게 기이한 일들은 잘 믿지 않는다. 되려 내가 흥미를 느꼈던 건 아이들이 왜 침묵하는가였다.

장지에는 우리 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프로그램 주제를 정할 때 먼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시작했다. 빈손으로 돌아오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젊은 아가씨들에게 “안돼”라는 단어를 차마 꺼내기 힘들어하는 상사였다. “가봐, 돈 아껴 쓰고. 카메라 두 대는 안 돼, 녹음 감독은 안 데려가도 될 것 같아. 카메라 감독 한 명이면 충분해.....아 그리고 큰 카메라 말고 디지털 캠코더 하나로 가.”라고 그는 말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다. 기사 마오씨는 서북지방 사람의 강직한 얼굴을 가지고 계셨다. 차에는 덩리쥘(鄧麗君) 테이프가 놓여있었다. 몇 년 동안 들어서 그런지 노래가 철사 같은 소리를 냈다. 나와 라오판은 몸을 흔들면서 <상환>이라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침묵하는 입술, 눈물의 흔적이 남아있네, 연지와 분이 아니라네.....” 기사 마오씨는 백미러로 우리 둘을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더니 웃었다.

서북지방(西北)은 광활했다. 금빛 유채꽃은 강같이 끝도 없이 피어있었다. 푸른 산의 모퉁이를 돌아 다시 유채꽃 밭이 펼쳐졌다.

라오판한테 나는 나도 미국 드라마 <프렌즈>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나와 몇 년을 함께 했다고. 그러자 라오판은 “하” 소리와 함께 내 머리가 마구 흐트러질 때까지 나를 흔들어 댔다.

현지 방송국 사람은 지방정부에서 취재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달이 어둡고 바람이 세게 부는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독약을 마신 샤오양 집을 찾았다.

무위(武威)는 하서주랑(河西走廊)에 있다. 옛날에는 양주(凉州)라고 불렀다. 쌍성(双城)은 서부 변경에 있는 작은 마을로 3만여 명이 살고 있다. 밤 10시가 지나면 몇 가구만 빼고 다 불이 꺼져있었다. 샤오양 집의 불은 켜져 있었다. 집 앞 마당 채소를 심는 곳에는 화학비료들이 쌓여 있었다. 시멘트 관 위에는 신발들이 널려 있었다. 샤오양의 아버지는 술에 취한채로 막 집에 돌아왔다. 얼굴이 벌개져서는 언성을 높이면서 뺨대고 있었지만 술에 취해 말이 분명하지 않았다. 어머

나는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앉자마자 대문이 “쿵”하고 열렸다. 대여섯 명의 몸집이 큰 남자들이 들어와서는 자기들이 누군지 말도 안 하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다. 라오판은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그들과 말싸움을 했고 양측은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런대로 한동안 시간을 벌 수는 있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샤오양에게 “나랑 같이 무위(武威)에 가서,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인터뷰하는 건 어떠니?”라고 물었다. 남자아이는 가는 목을 숙이고 있어서 두 개의 짙은 눈썹만 보였다. 계속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물었는데 아이는 “갈게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순간 나도 모르게 “왜?”라고 물었다.

“기자님 사스에 관한 보도를 본 적 있어서요.”라고 그는 대답했다.

몇 달 전 사스 보도를 하면서 얻은 모든 영광스러운 칭찬이, 이 한마디만 못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기사 마오씨는 능숙하게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산타나가 보였다. 운전기사 한 사람만 있었고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호텔에서 내렸다. 다음날 기사 마오씨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어젯밤에 우리가 올라간 후 산타나에서 두 사람이 내리더니, 그의 차에 타 “아까 그 사람들은 어디 기자예요?”라고 물었다고 했다.

기사 마오씨는 차를 바로 경찰서로 끌고 가서 그 두 사람을 경찰한테 맡기고 집에 가서 잤다고 했다.

나중이야 그 두 사람은 진장(鎭長)이랑 그의 동료인 것을 알았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게 그렇게 숨을만한 일이에요? 당신들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일인데요.”라고 말했다.

진장(鎭長)은 듣고 마음이 놓였는지, 얼굴의 반을 가린 선글라스를 벗었다.

나는 의아해하면서 “어제 왜 당신들은 못 봤죠?”라고 물었다.

그는 만족해하면서 “아이고, 당신이 뒤를 돌아보면, 우리 둘이 뒷좌석에 숨어 들어가서 못 보셨죠. 빠르죠?”라고 대답했다.

샤오양을 인터뷰 했지만 아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나는 “현장을 보고 싶어서 내일 너네 학교 가보려고.”라고 말했다.

샤오양은 갑자기 “저도 같이 가도 돼요?”라고 물었다.

다음날 아이는 나를 학교로 데리고 갔다. 교장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줬다. 중년에 머리는 하얗다. 사람을 보면 손으로 머리를 뒤로 쓸어 넘겼다. 멧쩍게 웃으면서 “몇 개월 사이에 하얗졌어요.”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마음이 괴로워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미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의 억지 미소에 얼굴 근육이 흔들리고 있었다.

6학년이 공부하는 기와집을 찾아 책상을 하나하나 봤다. 어떤 책상에는 삐뚤삐뚤하게 “519”라고 새겨져 있었다. 칼자국이 매우 깊게 새겨져 있어 새로 칠한 빨간색 페인트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샤오양은 그중 한 책상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책상은 첫 번째로 독약을 마신 먀오먀오라는 여자아이의 책상이었다. 사망날짜는 5월 19일, 먀오먀오와 함께 독약을 마신 샤오차이는 구조돼서 살아났다. 이틀 후인 5월 21일 점심, 같은 반 샤오수언이 독약을 마시고 구조되었다. 5월 23일 아침, 샤오니가 독약을 마시고 구조되었다. 5월 23일 밤, 샤오양이 독약을 마시고 구조되었다.

이 아이들의 책상에는 모두 “519”가 새겨져 있었다. 먀오먀오 부모님은 그들이 단체 자살을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마을 사람이 종이 담배를 말고 있었는데 눈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 그것이

흥분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다. “분명히 무슨 사이버 종교 때문이에요. 백서(白皮書)도 있다고 들었어요.” 눈으로 옆에 높은 곳을 훑으면서 “이곳도 기운이 안 좋아요.”라고 말했다. 높은 곳은 괴성각(魁星閣)이라는 곳이었다. 이곳은 괴성상(魁星像)을 모시는 거대한 석각(石閣)이라고 했다. 일이 터지기 전 아이들이 종종 그 위에 있었고 글씨도 새겼다고 했다.

나랑 라오판은 서로 바라보았다. 긴장되었다.

샤오양은 말을 아꼈다. 우리에게 마오마오의 친한 친구 샤오천이 다 알고 있으니 개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우리는 샤오천의 집을 찾았다. 12살의 소녀였다. 꽃무늬 하얀색 셔츠를 입고 고개를 숙이면서 바닥을 쓸고 있었다. 무성한 머리카락과 가름한 하얀 얼굴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온 것을 보고, 침착하게 손에 들린 빗자루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 쓸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했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천천히 쓸어 내려갔다. 바닥에는 둥글고 미세한 자국이 남았다. 다 쓸고 난 후 빗자루를 벽에 걸린 못에 걸었다. 샤오천은 엄마에게 우리가 앉을 의자를 가져다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곤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대나무 커튼 사이로 샤오천이 우리를 등지고 종이를 한 장 들고 전화 거는 것을 보았다.

여자아이는 대나무 커튼을 걷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내가 무슨 질문을 해도 샤오천은 침착하게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했다.

“마오마오랑 친한 친구 아니니?”라고 나는 물었다.

“우리 반에는 애들이 많아요. 다 친구예요.”라고 샤오천은 대답했다.

나는 잠시 멍해져서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없니?”라고 물었다.

“공부하기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라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대답했다.

샤오천은 나를 보고 있었다. 예의바르게 나의 다음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그 아이를 보았다. 둥글고 까만 눈에서는 어떤 표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다

만 내 모습만 반사돼서 보일 뿐이었다. 이때 창문 밖으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어른 몇 명이 들어와서는 “당신들 기자증 있어요?”라고 물었다.

그들은 짙은 파란색 재킷과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닌 시 위원회 홍보부에서 나온 것 같았다. 우리가 촌에 머무는 걸 원치 않아 했다. 차에 태워 우리를 뇌대 한묘(雷台漢墓)로 데리고 갔다. “이런걸 보도하면 얼마나 좋아요.”라고 앞뒤로 따라오면서 설명을 해줬다. 라오판은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듯했다. 그녀는 시골을 처음 와봤다. 바닥에서 작은 개구리를 보면 웃고, 소리 지르면서 개구리 뒤를 따라 쫓았다. 홍보부 사람들은 이렇게 순진한 기자는 처음 보는지 엄격한 사람들마저도 웃음을 지었다. 라오판은 시베이(西北)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늘색에 다시 한 번 놀랐다. “구름!”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에게 보라고 가리켰다.

앞에서 걷고 있던 홍보부 책임자는 30대였다. 이름 끝 글자에 마침 구름“운”자가 들어갔다. 그는 놀라면서 숙스럽게 고개를 돌려 “저 불렀어요?”라고 말했다.

모두 포복절도했다. 웃고 나니 다시 서로 얼굴 붉히기도 힘들었다.

방송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이 일은 누구나 당혹스러워요. 처리하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모두 사이버종교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누구에게도 좋지 않죠. 우리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당신들도 처리하는 경험이 더 많이 쌓이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운은 한숨을 쉬면서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조사했어요. 처음에 저희도 사이버종교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조사했는데 아니었어요. 잘 모르겠네요. 가서 조사해보세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괴성각(魁星閣)으로 갔다. 문은 이미 철사로 감겨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어떤 아이는 손발을 사용해서 비스듬한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갔다. 아이들이 하도 다녀서 내화 벽돌들이 반들반들 해졌다. 나는 사람을 불러 문을 열었다. 계단을 따라 돌아 올라갔다. 괴성상이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고 텅텅 빈자리는 연극을 하는 무대 같았다. 글씨가 새겨진 조벽이 있었는데, 사건이 터진 후



정부에서 그곳을 다시 페인트칠하고 석회로 덮었다. 조벽은 크지 않았다. 나는 닦을게 없어서 손으로 조벽을 쓸었다. 석회는 얇고 말라 있었다. 밑에 새겨진 글씨들이 드러났다. 작은 연필깎이로 비뚤비뚤 새겨진 글씨들은 “첫눈에 반하다”, “무림맹주” 같은 것들이었다. 나도 작은 마을에서 커서 아이들이 자주 이런에 모여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곳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예술적 정취가 묻어나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지 아닐까 싶다.

작은 마을에는 컴퓨터도 없고 서점도 없다. 학교의 유일한 오락 시설은 탁구대다. 네트는 두 개의 벽돌로 쌓아 대신했다. 길에는 아직 정쓰화의 90년대 테이프를 팔고 있었다. 샤오양의 방에는 한 장의 큰 네모난 하얀색 종이가 붙여져 있었다. 종이 위에는 사랑 노래 가사들과 비뚤비뚤한 악보가 적혀 있었다.

정부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조사할 때 어떤 학생이 몇 권의 책을 지붕 위로 던졌다고 말했다. 청소년 잡지인데 여자아이가 사랑을 위해 죽은 내용이 담긴 페이지 한 장이 접혀있었다고 했다. 마오마오가 접은 것이다.

나는 자살 원인이 책 때문인지 물었고, 샤오양은 조금 귀찮아하면서 말도 안된다는 듯 “그럴 리가요. 여자아이들은 다 봐요.”라고 대답했다.

농촌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늦게 들어간다. 쌍성(双城)초등학교는 6년제지만 마오마오는 이미 13살이었다. 나는 그 나이에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반 여자아이들은 모두 손으로 처절한 사랑 이야기를 받아썼고, 극적인 슬픈 분위기를 좋아했다. 마오마오 공책에 붙여져 있는 스티커는 내가 어렸을 적에 쓴 것과 똑같았다. 웅메이링 거였다.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마오마오 부모님이 말했다. “제 딸이 다른 사람의 자살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건 말도 안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깊은 감정이 있겠어요?”

먀오먀오는 쥐약을 먹고 자살했다. 그때 다른 여자아이 샤오차이가 같이 있었다.

우리는 샤오차이 집을 찾아갔다. 샤오차이 엄마는 문을 가로막으면서 “찍지 마세요. 우리 딸은 다 나왔어요. 예전에는 친구가 망쳐놔서 그런 거예요.”라고 말했다.

나는 “딸이 왜 독약을 마셨는지 아세요?”라고 물었다.

“.....”

“말은 얼마 동안 안 했어요?”

“십 여일 됐어요.”

“걱정은 되세요?”

“.....”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샤오차이 엄마는 길을 비켜줬다.

샤오차이는 눈썹과 눈이 가는 아이였다, 문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사람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을 증오했다. 추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촬영 담당 하이난은 신경 써서 역광 실루엣으로 샤오차이의 뒷모습을 찍었다. 짙은 파란 하늘과 마당의 푸른 호박잎도 화면에 넣었다. 고집스러운 듯 비스듬하게 땀은 머리, 바닥에 비친 머리카락 그림자의 곡선은 아이의 심적 흐름을 나타내는 것과도 같았다. 샤오차이는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물을 한 병 줬는데 물병을 인형을 안은 것처럼 품에 비스듬히 안고 있었다.

나는 샤오차이의 팔을 꼭 잡았다. 작은 손목에 칼로 “참을 인”자가 새겨져 있었고 파란색 잉크로 물을 들였다.

“뭘 참고 있는 거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잠은 잘 자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생각해?”

대답이 없었다.

우리는 마주 보면서 조금의 침묵 시간을 갖고 난 후 나는 “내가 너만 한 나이였을 때 가오롱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 가장 친한 친구였지. 갑자기 어느 날 그 친구는 학교를 나오지 않겠다고 했어. 그걸 들은 첫날 밤 혼자 집에 오는데 너무 슬펐어. 나중에 내가 조금 크고 나서 사람은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어떤 것들은 영원히 존재해. 교과서에 나온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웃과 같다’ 말처럼 말이야.”라고 말했다.

샤오차이는 많은 눈물을 쏟아 냈다.

아이는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공책에서 종잇조각 하나를 꺼냈다. 비뿔비뿔한 붉은 색연필로 “우리 여섯 친구는 가장 좋은 친구다. 행복은 함께 누리고 고통은 함께 나눌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고 밑에는 6명의 사인이 있었다.

천진난만한 맹세였다.

샤오차이는 마오마오가 자살한 이유는 몇 달 전 한 모임에서 남자아이가 그녀의 가슴을 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것을 본 저학년 아이들이 소문을 냈다고 했다. “굉장히 심하게 말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마오마오는 자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뭐가 그녀를 제일 괴롭게 했니?”라고 물었다.

“모임이 있었던 날부터 많은 친구가 마오마오를 욕했어요.....”

나중에 샤오양은 자신의 공책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마오마오에 대해 “마오마

오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은 지키고 싶어 한다. 나는 마오마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적혀있었다.

아이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는 샤오양에게 “네가 알고 있는 마오마오를 생각했을 때, 개가 가장 힘들어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밖에 물어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하는 모욕이 아닐까요.”라고 작은 소리로 아이는 대답했다.

4월 29일 마오마오는 슈퍼에서 0.5위안을 주고 환으로 된 “문도사(聞到死)” 쥐약을 한 봉지 샀다. 주간 회의에서 책상 서랍에서 그것을 꺼내어 먹다가 친구한테 발견됐다. “네가 먹으면 우리도 다 같이 먹을 거야.” 십여 명의 아이들은 마오마오를 말리기 위해 모두 쥐약을 2알씩 먹었다. 선생님은 강단에 있어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놀라서 “그래서?”라고 샤오차이에게 물었다.

“그 약은 진짜 쥐약이 아니었어요.” 나는 아이의 쓴웃음을 처음 보았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마오마오는 그래도 죽고 싶다고 말을 했고 샤오차이는 그럼 같이 죽자고 말을 했다고 했다.

나는 “친구가 목숨보다 중요해?”라고 물었다.

“아마도요.” 대답하는 아이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다.

5월 19일 오후 과외활동 시간에 마오마오는 혼자 운동장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같은 반 남자아이가 고무줄로 마오마오의 목을 한번 조르고 놓아 주었다. 마오마오는 바닥에 있는 물건으로 그 아이를 때렸는데 맞이지 못했다. 남학생 두 명이 보고 그중 한 명이 “애가 마오마오 가슴 만졌데요!”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마오마오랑 샤오차이는 매점에서 가루형 “문도사(聞

到死)“를 한 병 샀다. 매점 주인은 한 병을 더 주셨다. 둘은 배드민턴을 조금 치고 옆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유리컵을 빌렸다. 수돗물을 받아 쥐약을 타서 녹인 다음 벤치에 앉았다. 등을 돌리고 손을 맞잡았다.

“우리는 둘 다 웃었어요.”라고 샤오차이가 말했다.

“왜 웃었어?”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싶었어요.”

“죽는 게 무섭지 않았어?”

“무섭지 않았어요. 그곳은 다른 세상이니깐요.”

“무슨 세상?”

“근심이 없는 세상이에요.”

“누가 말해 줬어?”

“혼자 생각한 거예요.”

묘오묘오의 바지 주머니에 유서가 놓여져 있었다. 유서는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로 시작됐다.

묘오묘오가 죽고 난 후 십여 명의 아이들은 수업을 빼먹고 병원 영안실로 그녀를 보러 갔다. 그들을 발견한 의사는 “나는 아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처음 봤어.”라고 말해줬다.

영안실에서 돌아온 후부터 샤오쑤언이라는 아이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애가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어요.”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점심에 샤오쑤언이 냇을 놓으며 서 있는 것을 보고, 샤우쑤언 엄마는 “너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맨날 놀기만 하니.....”라고 말하면서 상자 위에 놓여있는 노란색 비닐 포장지로 그의 머리를 두 대 쳤다.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말했다. “내가 그렇게 세 개 때린 것도 아닌데 애가 대꾸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분위기도 좋지 않았어요. 마오마오가 독약을 마셔서 샤오쑤언한테 너도 마신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아들은 씩씩거리면서 ‘그러게요!’라고 대답했어요.” 샤오쑤언은 그날 뒤돌아 바로 농약을 찾아 마셨다.

“샤오쑤언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라고 같은 반 샤오니가 말했다. 아이는 밤새 울었다고 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고 날까 봐 등교를 부모님과 동행하도록 했다. 선생님은 학교 대문에서 감시했다. 샤오니가 혼자 등교한 것을 보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할래?”라며 혼내면서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샤오니는 교문 앞에 쭈그리고 있다가 집에서 농약을 가지고 나와 보리밭으로 들고 가 마셨다.

세 차례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정부는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학교에 투입시켰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은 독약을 마신 아이들과 친한 학생들을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심문했다. 샤오양도 심문을 당했다. 경찰은 마오마오와 “정당하지 못한 관계”를 가졌는지 심문했다.

“설명했는데 안 믿어줬어요.”라고 샤오양이 말했다.

그날 밤 샤오양도 약을 마셨고 위세척으로 살아났다. 그는 “전 모욕을 견딜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2003년 쌍성(双城) 주민의 일인당 연 소득은 3천 위안이 안 됐다. 아이들의 부모님은 모두 농민이나 개인 소매상인이라 생활이 어려웠다. 마오마오의 아버지는 “잘 먹이고 잘 입혔는데 뭘 더 바래요?”라고 말했다. 샤오양의 아버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손을 배에 올리면서 “아주 죽지 그랬어? 왜 일을 크게 만들어서 귀찮게 해.”라며 아들을 욕했다. 샤오양의 어머니는 바닥에 꿇어앉아 울면서 “네가 내 얼굴에 먹칠하는구나.” 말했다.

샤오양은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돌려 나갔다.

나는 그를 쫓아갔다. 아이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는 말했다. “조사 다 마치면 전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우리 조사 때문이라면 오늘 밤에 갈게.”라고 나는 말했다.

“그럼 절 다시는 못 보실 거예요.”

다음날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샤오양을 불러 놀러 가자고 했다.

우리는 말 목장으로 갔다. 들풀들이 높게 자라 있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두 마리 늙은 말이 있었다. 머리에는 빨간색 꽃이 꽃혀 있고 기운 없이 더러운 담요를 덮고 있었다. 농부 두 사람이 팔짱을 낀 채 옆에서 돈을 받고 있었다. 한 번 타는데 5위안이었다.

샤오양은 말을 하지도 않고, 말을 타지도 않았다.

나는 무모하게 청반바지를 입고 말에 올라탔다. “내가 타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자신 있게 말했다.

말에 올라타서 말고삐를 당기자마자 아마도 농부가 말 엉덩이를 발로 찬 듯했다. 말은 미친 듯이 달렸고 내 몸은 말 위에서 마구 흔들려 거의 नी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런데도 샤오양 앞을 지나갈 때 놀랍게도 이가 보일 정도로 그 아이한테 크게 웃음을 지어보였다.

샤오양도 날 보더니 웃었다. 라오판은 며칠 동안 그 아이가 웃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밤에 보니 내 종아리 안쪽은 모두 새파란 멍이 들어 있었다.

우리 라오판은 정말 상식이 부족하기는 했다. 나한테 물을 한바가지 떠다 주면서 “담가요. 따뜻한 물에 담그면 좋아질 거예요.”라고 말했다.

나는 다리를 따뜻한 물속에 넣어 불리면서 샤오양에게 편지를 썼다. “받았던 모욕은 분노할 필요도 돌려줄 필요도 없어. 그저 무시하면 돼.”

모욕을 무시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그 당시에 생각

났던 것은, 이런 방법으로나마 남자아이의 자부심을 일깨워주고 이 시간을 건디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고통스러울 때” 이게 내가 그나마 기억나는 편지의 끝부분이다. 14살의 나에게 주는 편지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서북지방(西北)의 하늘을 보러 가자, 밝은 숲을 보자, 그게 영원한 위안이다.”

나는 왜 마오묘오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깊은지 몇몇 아이들에게 물었다.

모두 다 “마오묘오는 사람을 잘 이해해줘요”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잘 이해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요.”라고 샤오차이가 대답했다.

연속적으로 독약을 마신 사건이 발생한 후, 성(省)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심리상담 선생님 두 분을 보냈다. 그들은 “이 나잇대 아이들의 특징은 친구에 대한 가치관과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견고한 작은 무리에서 그들 우정의 중요 사슬이 끊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져요.”라고 말했다.

사슬의 중심은 마오묘오였다. 사진 속의 이 여자아이는 부드럽게 크레파스로 그린 것과 같이 예뻐다. 턱선은 날렵했고 웃을 때 큰 눈은 반달 모양으로 됐다. 성적이 좋지만 반에서 중책을 맡는 타입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검은 머리를 뒤로 묶었고 곱슬한 잔머리들이 이마 옆으로 자라있었다. 마오묘오가 교탁 위에서 칠판을 지우고 있으면, 반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조용히 그녀의 공기머리가 흔들거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마오묘오의 유서에는 부모님께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적혀있었다. 엄마에게 할머니한테 잘해 달라고도 적혀있었다.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많이 외로워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전 알 수 있어요. 할머니는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아빠와 엄마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해요” 마오묘오가 하늘나라로 간 며칠 후 또 다른 편지가 한 통 왔다. 보낸 사람은 “당신들의 귀한 딸”이었



다. 편지에는 “당신들의 울어서 부은 눈을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네요.....”라고 적혀 있었다.

부모님은 분명히 누가 대필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조사에서 마오마오의 필체가 맞다고 감정이 되었다. 그 아이가 친구에게 자신이 죽고 난 후 편지를 붙여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이런 순수한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마오마오가 죽었지만, 아직도 마오마오의 사촌 남동생 마음속에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겨져 있었다.

“가장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는 어떡해?”

“참아요.” 마오마오의 사촌 남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다.

“묻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나는 샤오차이 팔에 칼로 새긴 참을‘인’자가 생각났다.

“저 자신한테 물어요.”

“그럼 너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니?”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왜 어른들하고 얘기하지 않니?”

“어른들이 하는 말은 믿지 않아요.” 그 아이의 말이 비수처럼 땅에 내리꽂혔다.

학생들이 연달아 독약을 마신 후 학교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벽돌 벽의 큰 칠판에 “기울을 지키며, 문명을 강조하자”, 깔끔한 해서체로 “건강한 책을 보고, 오락실에 가지 않고, 패거리를 짓지 않고, 봉건 미신적 활동을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었다. 5, 6학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학급 회의를 열었다. 나는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는데?”라고 물었다.

“약을 마시면 위장병 생깁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6학년 담임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주름 사이에는 먼지가 잔뜩 끼어있었다. 그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심리학 연수를 받은 게 1982년 사범학교에서였다고 하며, “누구도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고통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에게 책상에 친구를 기념하기 위해 새긴 “519”를 지우도록 명령했다. 그는 학교의 용인아저씨에게 모든 책상에 다시 페인트칠을 해달라고 했다. 이제는 새겨진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손끝으로 만지면 여전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생각이 났다. 4학년 때 막 전학을 갔을 때, 같은 책상을 쓰는 짝꿍 가오리리만이 내 유일한 친구였다. 그 애는 나에게 아주 잘 해줬다. 건포도로 우려낸 물을 나에게 마시라고 줬고, 우리는 첫 번째 줄에 앉았는데 수업을 들을 때면 책상 밑으로 손을 잡고 있었다. “너희 둘 그게 무슨 꼴이 니!”라고 담임선생님이 꾸짖으시면서 분필을 작게 분질러 내 머리 위로 던지셨다. 반 친구들은 키득거리며 웃었다.

학교가 끝날 때까지 내 머리에는 하얀색 분필 가루가 묻어있었다.

20년 후에 생각해보니 당시 내 선생님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6학년을 맡고 있는 이 선생님에게 “마음속 이야기는 누구랑 나누세요?”라고 물었다.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았는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안 나뉘요.”라고 대답했다.

“그럼 힘든 일 있을 때는요?”

“참아요.” 선생님의 답은 아이들과 같았다.

이번 방송은 라디오 방송국 시절을 생각나게 했다. 나는 많은 아이의 편지를 받았다. 한 남자아이는 “방송을 본 후 엄마랑 안고 있었어요. 저와 엄마의 가장 깊은 포옹이었어요.”라고 썼다. 한 누나는 “요 며칠 남동생이 시험을 잘 못 봤어

요. 방송을 보고 옆의 동생 방으로 가서, 동생이랑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라고 썼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관리실에 계시는 아저씨가 편지를 건네 주셨다. 같은 단지에 사는 어린 쌍둥이가 쓴 것이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몇 년이나 세를 들어 살고 있지만, 그 아이들과는 모르는 사이였다. 편지에는 “이번 방송 잘 봤어요. 그냥 여기에 사시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드리고 싶었어요.”라고 쓰여 있었다.

텔레비전은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내 의사 친구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했다. “이번 방송 되게 좋은데.....”

“그냥 말하고 싶은 거 말해.”

그는 웃으면서 “질문을 할 때 문학청년으로서 질문한 거야? 기자로서 질문한 거야?”

“차이가 있나?”

“우리 응급실을 예로 들게. 실습하는 의사들은 모두 다친 환자를 동정해, 환자와 함께 아파하고.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팔을 잡고 눈물만 흘리면 그들을 도울 수 없어. 침착하게 질문을 해야 처방을 할 수 있거든.”

나는 조금 억지를 부리며 말했다.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정도로 할 수 없고 생각할 틈도 없어. 나는 그 수술실에 갓 들어간 작은 의사야. 나도 실제적인 상처는 처음 봤고 나만의 반응이 있어.”

마오마오의 사촌 남동생을 인터뷰할 때 그 아이는 죽은 누나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나는 인터뷰는 이 정도면 끝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뒤돌아 촬영 담당 하이난에게 “이만 찍으면 됐어요.”라고 말하고, 쪼그려 앉아 남자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가서 얼굴 씻으라고 말해줬다.

남자아이는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어깨를 들썩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누나와 대화한 적 있어?”라고 물었다.

“네.”

“무슨 이야기 했는데?”

“.....잘 지내? 라고요.”

나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남자아이는 일어나 얼굴을 씻으러 가지 않았다. 방으로 달려 들어가 침대에 엎드렸다. 남자아이는 손에 얼굴을 묻은 채 몸을 구부려 온몸이 들썩이도록 울었다. 나는 침대 옆에 서서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방송을 보고 난 후에야 나는 라오판이 내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을 방송에 넣은 것을 알았다. 라오판은 정말이지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장면은 방영 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연기파 사회자”라는 신조어도 생겨나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토론까지 벌였다. 샤오핑은 눈을 크게 뜨면서 “왜 남자아이에게 눈물을 닦아 줬어?”라고 물었다.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 그게 기자야.”

마침 치엔강 선생님이 송년회에 참석하셨다. 그는 우리가 존경하는 뉴스부 선배님이다. 사람들은 밤에 위해(威海) 바닷가에 둘러앉아 이 일에 관해 그 선배님에게 물었다. 그는 누가 옳고 그르다고 직접적으로 말 하지 않고 대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미국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의 방송 기자 에드 브래들리는 교도소에서 연쇄살인범을 인터뷰했다. 그는 살인범에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라고 물었다.

살인범은 흑인이었는데, “제가 브루클린에서 자라세요.”라고 대답했다. 그 말인즉슨 그곳은 흑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자 치안도 좋지 않고 사회가 불공평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였다.

당시에 브래들리는 60대의 나이가 지긋한 수염이 하얀 흑인이었다. 그는 일어나 살인범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살인범을 흔들면서 말했다. “나도 브루클린에서

자랐어.”

치엔강 선생님은 “그가 그렇게 한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지금은 대답 하지 마. 너는 먼저 러시아 작가<sup>3)</sup>의 ‘깨끗한 물로 사래 걸러보고, 핏물에 몸을 담가보고, 소금물에 퐁퐁어본다.’는 말처럼 해야 해. 그런 다음 10년 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자.”라고 말했다.

그 10년이 곧 다가오고 있다. 내가 그 때 그렇게 했던 게 맞는지 틀린지 여러 번 생각을 했지만, 답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그때 의사 앞에서의 변명 중 일부분은 내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때 내가 말한 건 인생의 걸모습뿐이었다. 아이들 간의 복잡한 감정은 방송에 사용된 묘사로는 역부족이었다.

방송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모임에서 나온 루머 때문에 사건이 시작되었다고만 했다. 하지만 나와 라오판은 다른 자세한 사정도 알고 있었다. 그 학년에는 많은 아이들이 마오마오를 좋아했다. 고무줄로 마오마오의 목을 조른 남자아이는 수업 시간에 자주 마오마오의 팔과 머리를 만졌다. 마오마오는 누가 자기의 머리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샤오양에게 말했고, 샤오양은 그 남자아이를 때렸다.

샤오양은 반에서 나이도 가장 많고 키도 제일 컸다. 14살이어서 마오마오는 그를 “오빠”라고 불렀다.

자살하기 전 마오마오와 샤오양은 크게 싸웠다. 마오마오가 다른 경비원을 “오빠”라고 했기 때문이다. 샤오양은 그것을 알고 마오마오를 모른척했고 마오마오는 용서를 바랬다. 작은 골목에서 마주치자 마오마오는 샤오양을 가로막으면서 “미안해”라고 했지만, 샤오양은 못 들은 척 앞으로 걸어 나갔다. 마오마오는 바닥에서 벽돌을 하나 들어 자신의 이마를 내리쳤다. 샤오양은 “피랑 벽돌 가루가 섞여서 흘러내렸어요.”라고 말했다. 샤오양은 발을 멈추지 않고 걸어갔다.

나중에야 샤오양은 마오마오가 학생이 많은 운동장으로 돌아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샤오양 내가 미안해.....”라고 했다는 것을 알았다. 마오마오는

---

3)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중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모욕을 줘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이 일어났던 모임에서 마오마오를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마오마오를 안으려고 했고 마오마오는 거부했다. 샤오양은 마오마오에게 “안게 해줘.”라고 말했다.

샤오양에게 용서받기 위해 마오마오는 샤오양의 말을 들었다. 좋아하는 남자아이의 요구로 다른 남자아이에게 안겼다. 아마도 더 나아가는 행동을 할 때 다른 아이가 본 것 같았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그 모임에서는 거의 모든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우리가 인터뷰할 때 홍보부에 전화했던 여자아이는 사실 당시 “힘든 일은 함께 나누자”에 서명을 했던 여섯 친구 중 한 명이었다. 그 애는 마오마오와 외모나 성적에 있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마오마오 앞에서 샤오양에게 호감을 표시했던 적이 있었다. 아이들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을 짧은 9일 동안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독약을 마신 그날 오후에 마오마오는 남자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운동장에서 교실로 돌아와 샤오양 책상에 엮드려 울기 시작했다. 그 후 샤오양에게 사진을 한 장 달라고 했다. “내 마지막 소원을 이루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 마오마오는 책상에 “519”를 새겼다. “5월 19일을 잊지 말아줘.”라고 샤오양에게 말하고 뒤돌아 학교를 나갔다.

샤오양은 나에게 이런 자세한 사정들을 얘기할 때 계속 “정말 제가 마오마오를 죽게 만든 건가요?”라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답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가 매우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거진 10년이 지난 후 다시 방송을 보니, 카메라가 샤오양의 공책을 찍었는데, 당시엔 주의 깊게 보지 못했지만, 거기엔 글이 한 줄 있었다. “마오마오는 나와 이별을 했지만, 영원히 살아서.....” 여기까지만 쓰여 있었다.

우리가 분명히 밝히지 못한 진상들로 인해, 몇 년 동안 나와 라오판은 이일을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다. 아이들 간의 감정과 갈등을 말했을 때 시청자가 불편해하고 이해하지 못할까 봐 무서웠다. 또 “12, 13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렇다

니"라고 생각할까 봐. 비록 다들 12, 13살 때 이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겠지만 말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밝히지는 못했던 것은 뉴스매체의 "정치적 올바름" 때문이었다. 우리는 한 사건의 기본 프레임을 서술한다. 하지만 이는 대중들이 "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호막을 친 초라한 프레임일 뿐이다.

훗날 나는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를 구상할 때, 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내연녀가 돼서 철로에 드러누워 자살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고 모티브로 썼다고 말한 것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안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은 배신하고 허영을 쫓는 여자이기에 "별을 받아 마땅한" 결말을 쓰려고 했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안나를 미화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깊게 그녀를 쓰기 시작했다. 인성은 본래 자기만의 힘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이야기의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 싹을 틔운다. 가지가 많을수록 꽃은 한층 더 피어나고 점점 넓게 우거진다. 안나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소시민적인 도덕적 판단을 뛰어넘어 사람들 가슴에 비극적인 공명을 안겨주었다.

인간에 대한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인간을 더 깊이 있게 그려낼 수 있다.

그 방송을 만들 때, 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단순하고 쉬운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떠나기 전 우리는 마침내 마지막 친구 샤오쑤언을 찾았다. 아이는 우리를 보자, 쏘살같이 뛰어 흙 벼랑 위로 달아났다. 나는 신발을 벗어 손으로 들고 맨발로 기어 올라갔다. 우리 둘은 벼랑 끝 쪽에 앉았다. 카메라는 뒤에서 샤오쑤언의 등을 찍었고 붉은 마이크는 벼랑 옆 구덩이에 높이 세웠다.

샤오쑤언은 나를 보지 않고 먼 곳을 보고 있었다. 백양나무로 에워싸인 마을, 바람이 불면 초록 잎은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어져, 눈을 찌르는 은백색이 넓게 펼쳐졌다.

나는 고향이 산서(山西)다. 사방이 이런 흙 벼랑이어서 어릴 때부터 늘 흙 벼랑

을 올라 다녔다. 혼자서 자주 얼음이 언 언덕을 넘었고 그곳에서 초봄에 핀 살구  
꽃을 보기 위해 몸을 숙여 고개를 내밀어 보기도 했다.

나는 “자주 여기에 앉아있어?”라고 물었다.

샤오쑤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널 볼 수 없어서?”

“네.” 아이가 며칠 동안 처음으로 어른에게 말한 단어였다.

나는 그 아이의 팔에 있는 상처를 보았다. “무엇으로 새긴 거야?”

“칼이요.”

샤오쑤언은 고개를 무릎 안쪽으로 박고 있었다. 나는 아이 앞에 쭈그려 앉아  
가무잡잡한 아이의 얇은 팔을 꼭 잡았다. 그 아이의 피부는 타서 하얗게 벗겨졌  
다. 묻은 흙을 조심히 털어내면 옅은 빨간 상처가 세 줄 보였다.

나는 질문을 이어 나가고 싶었지만 샤오쑤언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말도 없이  
언덕을 걸어 내려갔다.

카메라는 그 아이가 안 보일 때까지 화면에 담았다.

그 아이는 나와 전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했다. 순간 번개같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아이가 모임에서 마오마오를 안은 남자아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샤오쑤언은 언덕을 걸어 내려가 송아지 우리를 돌고 집을 끼고 돌았다. 고개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낮은 담 뒤로 사라졌다.

1분 동안 나는 멍하니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카메라 앵글이 나에  
게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이난이 조용히 “뭐라도 말해봐.”라고 할 때에야  
잠깐 멍하니 있다가 내 심정을 말했다. “아이가 인터뷰 도중 자리를 뜬 것을 보  
면서, 우리는 아이가 아직 많은 말을 못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들이 독약을 마신 진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쌍성(双城)사건을 지금까지 조사  
한 결과 우리는 가장 큰 수수께끼는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1분 44초짜리 롱 테이크는 방송 엔딩으로 쓰였다. 후에 내 직업적 경력에서 자주 거론이 되었었고, 이것을 카메라 앞 즉흥평가능력이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내가 했던 그 말들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저 내 머릿속 깊이 박혀있는 하나의 말뚝을 옮겼을 뿐이다. 예전에 내가 스튜디오에 앉아 있을 때 끝에서 하는 논평은 당연히 하나의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주와 법치의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를 말해야만 정리하고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치 스튜디오가 하나의 무대이고, 하나의 직업을 내가 연기하는 것 같았다. 방송을 답이 없는 결말로 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었다. 현실의 세계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 제8장 나는 단지 굴복이 싫었을 뿐

천파칭은 어망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참새를 구하고 있었다.

그는 어망을 풀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풀어주지 마. 풀면 또 과일 집어 먹어. 매달려있으면 다른 것들 놀라게 할 수 있잖아.”라며 소리쳤다. 한 무리 아이들은 산나물을 캐 오는 길이었다. 그들 손에는 가위가 들려있었다. 언제 우르르 마당으로 들어왔는지 모두 그 참새를 뚫어지라 보고 있었다.

앞장선 아이는 키가 제일 컸다. “이거 맛있어.”라며 손을 뻗어 참새를 잡으려 했다.

천파칭은 마음이 급해져서 어망을 잘라버렸다. 참새를 손에 담아 뒤집어서 조심스럽게 작은 가위로 참새 발에 엉켜있는 검은색 어망을 조금씩 조금씩 잘라주었다.

아이가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잡으려 했다. 천파칭은 손을 펼쳤고 새는 날아갔다.

이런 사소한 부분과 그의 너무 반짝이는 민머리 뒤통수는 영화에 나오는 지능은 낮지만 순수한 포레스트 검프를 연상시켰다.

그는 농부다. 학교도 6년밖에 못 다녔다. 1999년부터 촌 주위의 채석장에서 나오는 먼지가루와 집 앞에 흘러가는 더러운 강물 때문에 여기저기 신고를 하고 다녔다. 먼저 지역 환경보호국을 검찰에 고발한 다음, 성(省) 정부도 같이 고발했다. 인민대표대회에 입법 건의를 썼으며, 마지막에는 아예 자기 돈으로 <인민일보(人民日報)> 신문사에 공익 광고를 냈다. “신문을 보는 공무원들을 감화시켜서, 진심으로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그를 2006년에 보았다. 그가 과거에 부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먼지가 가득 쌓인 아우디 차였다. 그는 이 차도 팔아 환경보호재단을

만들려고 했다.

포레스트 검프는 영화에 나오는 허구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천파칭은 실제로 살아갈 인생이 있다. 물이 새는 집과 아픈 아내와 내일 아침부터 고쳐야 하는 어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은 없었다.

촌사람들은 모두 “천파칭이 많은 일을 도와줬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럼 지난 7년 동안, 촌에서 그를 도운 사람은 없었나요?”라고 물었다.

“없어요.”라고 작고 몸집이 좋은 청년이 대답했다. “재작년에는 호소문에 같이 사인을 하자고 했는데, 안 썼어요.”

“왜요?”

그는 한번 웃더니 “먹고 살기 바빠서요. 너무 바빠요.”라고 말했다.

“그런 일은 다 돈이 들어가지.” 노인은 담뱃재를 털면서 “정부한테 소송 거는 건 답이 뻘해.”라고 말했다.

“천파칭은 하고 있잖아요?”

“촌사람들은 그가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라며 청년은 한마디 끼어들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모두의 일 아닌가요?”

“개 혼자로도 충분해.”

그래서 그는 혼자 했다. 환경보호국 소송에서 졌고, 성(省) 정부를 고발한 것은 소장 처리도 안 됐고, 인민대표대회에 쓴 편지도 답장이 없었다. 광고비로 인해 그의 전 재산을 거의 날렸다.

천파칭은 “돈을 다 쓰면 멈출 거예요.”라고 말했다.

<반변천(半邊天)>의 장위에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녀는 “포레스트 검프는 뭘 보기만 하면 다가가. 다른 사람은 목표가 보이면 작전계획을 짜지. 그

다음에 포복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왼쪽으로 피하기도하고 오른쪽으로 은신하면서 몸을 가려줄 보호막도 준비해. 그 다른 사람들이 평생 바쁘게 피해 다니며 지내는 걸 보면 참 요란하다고 생각해. 마지막에는 아무 곳에도 다다르지 못하지.”

하오진송도 포레스트 검프와 똑같은 민머리를 하고 있다. 뒤통수는 모두 밀어서 거의 푸르딩딩했다. 비뚤비뚤 잘린 머리카락들이 뺏뺏하게 자라있었다.

2006년 3월 21일 오전 10시 3분, 북경시 제일중급인민법원(第一中級人民法院)에서 그는 원고 자리에 앉아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제가 통보받은 재판 시간은 10시인데, 피고인은 지각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재판장은 그를 한번 보더니 “먼저 법원의 절차를 지켜주세요.”라며 서기에게 손을 한번 흔들었다.

서기는 뛰어나가 큰 소리로 “북경 지하철! 북경 지하철!”라고 외쳤다.

남자 두 명이 서류가방을 들고 급하게 문으로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서로의 눈이 맞닥뜨리는 순간 법원은 조용해졌다. 나는 허진송이 왜 “아무리 힘이 있고, 국가 부서여도, 소송에 걸려 재판에 오게 되면 피고가 되고 고발한 이가 원고가 되요. 서로 맞은편에 앉아있고, 그 가운데 판사가 있지요. 모두 평등하죠.”라고 말했는지 이해됐다.

이번 재판은 돈 5마오 때문에 일어났다. 허진송은 지하철에서 유료 화장실을 이용했다. 그는 이 5마오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북경 지하철을 제소했다. 그는 법을 전공하는 일반 학생이었다. 변호사증도 없고 “국민”의 자격으로 소송을 건 것이다.

2년 동안 그는 7개의 소송을 걸었다. 기차에서 물을 사고 영수증을 요구했는데 승무원들은 비웃듯이 “예전부터 기차에서는 영수증 발급을 안 해줬어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철도부와 국가세무총국을 고소했다.

“큰 기구 앞에서 사람들은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

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라며 “전 그들을 전쟁터로 끌고 나올 거예요. 제가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픔을 느끼게 할 수는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이 십여 명, 이십여 명이 있다는 걸 알면 두려워할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빠르게 변할 거예요.”

“액수가 너무 적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잃어버렸다고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나는 말했다.

“오늘 그걸 얻을 권리를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이 더 많은 권리를 잃어버릴 거예요. 인격권, 재산권, 집이랑 땅도 포함돼요. 현재 중국의 이런 상황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따뜻한 물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개구리와도 같은 결과지요. 사람들은 농부들의 땅이 침해되는 것, 기차에서 영수증 발급을 안 하고 탈세하는 것, 다른 사람의 집이 강제적으로 철거되고 이주하는 것이 모두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힘으로 뭘 바꿀 수 있을까요?”

“로자 파크스를 보세요. 전 세계가 바뀌었죠.”라고 그는 말했다.

파크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재봉사였다. 그녀는 1995년 12월 1일,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버스를 탔다. 당시 남부의 여러 주에서는 아직 버스에서 인종 격리가 실행되고 있었다. 버스 자리는 앞과 뒤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백인은 앞좌석에 흑인은 뒷좌석에 앉았다. 중간 부분은 “회색지대”였다. 흑인은 “회색지대”에 앉아있을 수 있지만, 백인이 자리 요구를 하면 흑인은 반드시 비켜줘야 했다.

그날 밤 버스에 사람이 많았고 백인 자리는 만석이였다. 백인 남자는 파크스가 앉아있는 “회색지대”로 와 그녀에게 자리를 요구했고, 그녀는 거절했다.

흑인 승객들에게 버스 운전사와 경찰이 “회색지대” 자리를 양보하라는 협박 속에서, 다른 3명의 흑인 승객들은 자리를 비켜주었다. 하지만 파크스는 완강하게 제자리에 앉아있었다.

만약 상대방이 아이이거나 노인이었으면 그녀는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에 42살의 그녀는 흑인들이 매일 생활 중에 받아야 하는 불공평한 대우에 진저리가 났다.

그녀는 “저는 굴복이 싫었을 뿐이에요.”라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공개적으로 백인을 알보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녀의 체포는 흑인들이 382일 동안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때 아직 지명도가 높지 않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그는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투사”와 노벨 평화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번 저항운동으로 미국연방최고법원은 1956년 버스에서의 “흑백 분리”를 금지한다고 판결 내렸다. 그 후 파크스는 “미국 시민권 운동의 어머니”로 불렸다.

50년 후 파크스의 장례식에서 미국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은 “로자 파크스가 없었다면 나는 국무장관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마틴 루터 킹의 전기(傳記)를 보면서 그가 시민권 운동을 이끌었을 당시 겨우 26살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한 젊은이가 제안한 “비폭력 저항”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을까? 무엇이 4만여 명의 흑인들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스 탑승 보이콧을 하게 했으며, 매일 걸어서 외출해야 하는 체력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하게 했을까? 미국의 KKK(Ku Klux Klan)들이 흑인들을 공격했다.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끼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뉴욕 흑인 지도자 맬컴 엑스는 “비폭력은 화약통을 눈가리개용으로 덮은 담요다. 지금 우리는 그 담요를 찢히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공격, 구타, 체포, 얼굴에 케첩을 맞는 것을 여전히 참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어떠한 정치적인 대담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어떠한 명예를 얻을 수도 없었고,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다.

과학자는 “증오는 기본신경조직입니다. 인간의 뇌가 가장 최근에 진화한 외부 피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럼 왜 1955년 그들이 선택한 것은 가장 원시적인 반응이 아니었을까? 울분을 참는 것, 혹은 전쟁이나 방화나 약탈 혹은 파괴가 아니었을까?

1929년 마틴 루터 킹이 태어났을 때, 미국 내에서 흑인 중산층이 점점 형성되고 있었다. 비록 많은 인종 불평등 조항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마틴 루터는 미국 남부지역 흑인 대학교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 불복종의 의무>를 읽었고, 보스턴으로 박사를 하러 가기 전, 이미 간디의 “비폭력 저항” 관점을 숙지하고 있었다.

마틴 루터가 더 어렸을 때, 백인 아이들과 같이 교과서에서 <미국독립선언>을 읽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은 이러한 권리에 속한다.”

한 사람이 본능적으로 도피하거나 반격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 그가 제자리에서 공격을 참을 수 있으려면, 공정한 게임 규칙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이 게임의 규칙 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26살의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집단 속에서 이러한 제도의 운용규칙을 숙련되게 다룰 줄 아는 첫 번째 세대였다.

마틴 루터 킹에게 깨우침을 가져다준 <시민 불복종의 의무>의 문장은 현재 미국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고 많은 중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이다. 교재에 나온 문장 뒤에는 [생각하기] 문제가 3개 있다.

소로는 누가 멕시코 전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암시를 했나요?

소로의 관점에서 왜 소수의 사람이 부를 남용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가요?

소로의 관점에서 미국인은 언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정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내준다.

나는 20살에 재무 회계를 전공했다.

나도 정치수업을 들었었다. 대학교 정치경제학 수업에 나오는 이론들을 공책에 받아 적기만 했다.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모두 외웠다. 주동적으로 문제를 물어본 적도 없고 우리에게 토론에 참여하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표준 답안만 외우면 됐기 때문에 한 글자도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었다. 책 가장자리에는 유행하는 가사를 적었었다. 사회 참여도가 가장 열정적인 시기는 젊을 때다. 하지만 나는 기자가 되고 난 후에야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정치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교육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

유명 화가 천단칭을 인터뷰할 때였다. 그가 청화대학교(清华大学)에서 미술대학교수직과 박사과정 지도교수직을 사직한 뒤였다. 그 이유는 정치시험과 영어시험 때문에 그가 원하는 학생을 뽑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정치는 본래 하나의 학문인데, 우리가 하는 정치시험은 반정치적이에요. 아무도 그 과목을 존중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한 아가씨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모딜리아니의 그림과 비슷했다. 한 줄의 선이 사람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그녀 그림의 “촉촉하고 맑은 느낌”이 좋다고 했다. 그림을 그린 여자의 이름은 우원이다. 천교수 밑에서 석사를 공부하고 싶어 했다. 2년 동안 입학시험을 봤는데, 첫해에는 정치와 영어가 1점씩 모자랐고, 다음 해에는 영어가 3점 모자랐다. 결국 그녀는 천단칭이 있는 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하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해 런던시티대학교 예술학과에 합격했다. 우리는 국제전화로 그녀를 인터뷰했다. 그녀는 “저는 런던에 오자마자 하이게이트 공원묘지에 있는 마르크스 묘지에 가봤어요. 지금 마르크스가 저에게 주는 느낌은 정치 교과서에서 받았던 느낌이랑 완전 달라요.”라고 말했다.

천단칭의 다른 학생들도 모두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았다. 그는 “제가 가장 많이 겪은 상황은 사람들이 의심이나 반항이나 큰소리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체념하는 것이예요. 이게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왜 ‘수궁’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한번 웃더니 “지금 길에 나가서 제가 아무나 붙잡고 오면, 기자님이 그 사람을 본 순간 그가 체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깊이 체념하고 있다는 것을.”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다 편집하고, 라오하오는 수영하러 갔다가 눈으로 봐도 수영장 물의 탁한 정도가 기준치를 넘어 보여, 몸을 돌려 프런트에 찾아갔다. 거기 직원은 국영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저희는 들어가면 환불 안 해줘요.”라고 했다.

“관장님 불러 주세요.”

“요 며칠 기계가 고장 나서 수리 중이에요.....”

“기계가 고장 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들여보내요?”

“환불해 드리면 되잖아요.....”

라오하오는 핸드폰으로 114에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하이디엔구 주민방역소 감독부 전화가 어떻게 되죠?”라고 했다. 밤에 블로그에도 이 일을 공개적으로 썼다. “관장님 불러 주세요.”라고 쓰고 독자들에게 “그때 제 표정이 상상이 되나요?”라고도 물어봤다.

나는 한 댓글을 보고 웃었다. 글 밑에 라오판이 “상상돼요.”라고 댓글을 달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억눌렀다가 터진 우리의 권리 보호 의식은 조금 지나친 데가 있는 듯했다. 하루는 장지애가 재미로 군사 훈련을 하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 나이도 있는데 군사 훈련을 하지 말고 차라리 수련회를 가자고 했다. 장지애는 부하직원들에게 비교적 민주적인 지도자이자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와 라오하오가 말을 너무 예의 없이 말해서 체면이 안 섰는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물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손을 들었다.

장지에는 “군사훈련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어? 그 누구야, 너 들어와서 얘기해 봐.”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발끝으로 허공을 한번 차면서 발을 공중에 멈춘 채 “저는 태양 아래서 땀 흘리는 게 좋아요.”라고 대답했다.

장지에는 몸을 돌려 문을 힘껏 닫으면서 “그럼 이렇게 정한다. 훈련을 가야 내 말에 복종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틀 후, 한 무리의 성인들이 군복을 입고 한여름에 내리쬐는 태양 밑에서 우향우 좌향좌를 연습했다. 나는 새빨간 두건을 두르고 있었고 라오하오는 총에 야생화를 꽃았다. 우리 둘은 건들건들하게 제자리에 서 있었고, 군체권(軍體拳)을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 있었다. 밤에는 야영 훈련도 해야 했다. 이불을 두부처럼 접어 몸에 메야 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이불을 개 본 적이 없었다. 자포자기하며 침대 위에 앉아 이불을 몸 뒤로 쌓았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검사받기를 기다렸다.

중대장을 맡은 장지에는 와서 “왜 이불을 안 깬나?”라고 물었다.

나는 “못해서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언짢아하지 않고 도리어 웃으면서 “내가 개 주지.”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군것 같아 부끄러워졌다. 장지에는 보기 드문 좋은 사람이다. 그는 단지 이처럼 잘 정돈된 이상주의적 패기를 좋아할 뿐이다. 우리의 이런 방식의 불만을 받아줄 사람도 장지에 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참지 못하고 글을 한 편 썼다. 미국의 언론인 크롱카이트에 대해 썼다. 그가 초등학교 때 한 학교로 막 전학을 갔을 때 일이다.

선생님은 “2 곱하기 2가 뭐지?”라고 물으셨다.

“4요.”라고 그는 적극적으로 처음 손을 들어 대답했다.

“틀렸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4요.” 그는 자신이 맞다고 확신했다.

“여기 반 친구들 앞에 서서 정확한 답을 생각해보렴.” 라고 여선생님은 말했다.

그는 앞에 서서 엄마가 준비해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아직 인사도 못 한 그를 비웃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눈물을 쏟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나고, 선생님은 “답을 생각해 냈니?”라고 물었고 그는 생각해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선생님은 “4요. 선생님!”이라고 대답하는 거야.”라고 그를 일깨워 주었다.

크롱카이트는 70년 후 글에 “나중에서야 이런 특성이 나에게서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나는 설령 가장 가벼운 군사적 일률화의 암시조차 증오한다. 이런 독립에 대한 절박함이 많은 사람을 뉴스업계로 들어오게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썼다.

라오하오와 나는 아방조<sup>4)</sup>가 소송에 걸린 일을 인터뷰하기 위해 출발했다.

리강은 소송을 건 변호사다. 그는 조사하면서 아방조가 법적 의미가 있는 인증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약 회사에 인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가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다. 고소를 1년 동안 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그는 예전처럼 그가 소송을 걸었던 “천진 고속도로 통행료(進津費)”, “상해 고속도로 통행료(進滬費)”처럼 흐지부지될까 봐 걱정했다.

2006년 2월 천강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상하이에서 소송을 걸었다. 그는 이일을 지원하는 중이었다. 그리하여 아방조는 또다시 매체 보도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추적 보도로, 2006년 3월 21일 전국아방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일에 대해 해명하였다. 2007년 위생부(衛生部)는 전국 아방조를 해체했다.

리강은 “제 예상 밖이었어요.”라며 굉장히 의외였다고 말했다.

“왜요?”

그는 “국민들이 힘 있는 기구에 의문을 가졌을 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못 듣

4) 牙防组: 全国牙病防止指导组 전국충치방지지도조

는 것에 습관이 되어서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끊임없는 소송과 보도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와 기자, 그리고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일을 주목하고 아방조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한편의 블로그로 썼다. 제목은 <나는 단지 굴복이 싫었을 뿐>이다. 댓글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왜 많은 사람이 굴복을 선택할까요? 그들은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도 얻는 게 적거나 아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다. “말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 대다수가 보통 사람이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진정한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많은 이익과 권리를 싸워줄 사람이 생기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나라에서 기업을 자기들끼리 독점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은 우선 자신감이 없어요.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중국인들은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 되어서 그래요. 모두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권위가 최고라고.”

<뼈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영화가 있다. 주인공 맥머피는 처벌을 피하고자 미친 척을 하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간 떠돌이다. 모든 환자는 의사가 정한 대로 절차에 맞게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수다를 떠다. 하지만 맥머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해진 심리 치료 토론 시간에, 모두 세계야구 선수권대회 생중계를 보고 싶어 해서 그는 아침 일정을 밤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랫체드 간호사는 “당신은 세밀한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규정을 바꾸자고 요구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맥머피는 “작은 변화는 해롭지 않아요.”라고 대답했다.

“어떤 환자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지금 일정에 적응했어요. 만약 지금 바

꾼다면 그들은 굉장히 낯설어할 거예요.”라며 랫체드는 반대했다.

“이건 세계선수권대회예요. 경기가 끝나면 다시 바꿀 수 있어요.”라고 맥머피는 말했다.

랫체드는 양보를 하는 듯 “그럼 이렇게 하죠. 다수결로 정하죠.”라고 말했다. 맥머피는 크게 찬성하면서 “좋았어!”라며 제일 먼저 손을 높이 들었다. 체스웁도 손을 들었다. 데버도 손을 들고 싶었지만 랫체드와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재빨리 내렸다. 마티니는 손을 올렸지만, 머리를 굽는 척하면서 머리 위에 손이 멈춰있었다. 세브르는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주변을 지켜보면서 대다수가 손을 들면 그도 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경기를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맥머피가 아무리 용기를 북돋아 주어도, 아무도 감히 랫체드의 시선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랫체드 간호사는 “3표밖에 안 되네요. 미안하지만 당신의 뜻대로 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맥머피는 “이게 당신들이 정한 규정인가요? 저는 시내로 가서 야구경기를 볼 거예요.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라고 말했다.

빌리는 “맥, 당신은 못 나가요.”라고 믿지 않는 듯 말했다.

“못 나가다니요?” 맥머피는 방 한가운데 있는 화강암 세면대를 가리키며 “그걸로 창문을 부수면 돼요.”라고 말했다.

“당신은 못 들어요.”라며 빌리는 여전히 믿지 않았다.

맥머피는 빌리와 10달러를 걸고 손을 비비더니 힘껏 세면대를 들려고 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다시 힘을 쥐서 들어봤지만,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없이 뒤로 물러났다. 맥머피는 갑자기 “에이, 드디어 시도해봤네. 난 최소한 시도는 했어!”라며 큰소리쳤다.

하오진송이 기차 영수증 소송에서 이긴 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철도회사와 원한을 맺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송을 걸고 난 후 그가 기차를 탔을 때

열차 사무장이 그를 알아보고, 직접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그에게 “영수증은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 다 먹고 갖다 드릴까요?”라고 물었다.

“무엇으로 존중을 얻나요?”라고 나는 물었다.

“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으로 얻어요.”라며 하오진송은 말했다. “권리는 신장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한 장의 종이일 뿐이죠.”

“뉴스조사”에 있을 때 나는 한 사람을 인터뷰했었다. 그는 농부들의 토지 징수(征地) 문제에 항의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그 지역 지도자를 거론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과한 단어를 사용해 명예훼손죄로 교도소에 2년 갇혔다.

나는 그를 교도소에서 인터뷰했다. 인터뷰 당시 그는 징역 1년을 넘게 살고 있었다.

“왜 그렇게 해야 했나요?”

“제가 예전에 글을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하오진송이라는 변호사에 관한 글이었어요. 제목이 뭐였더라..... 무슨 굴복이었어요.”

“<나는 단지 굴복이 싫었을 뿐>이요.”라고 나는 말했다.

그는 조금 놀란 듯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아 맞아요.” 하면서 조금 있다가 “그 글에서 변호사가 권리는 펼치지 않으면 한 장의 종이일 뿐이라고 말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그 종이에 써져있는 글들을 믿었고 이제 파란색과 하얀색 줄무늬로 된 죄수복을 입고 수염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그가 교도소에 들어간 후 공장은 문을 닫았고 이혼도 했다. 교도소는 그의 집과 785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았다. 같은 촌에 사는 쓰레기 줍는 할아버지가 그를 보러왔다. 축 처진 파란색 천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는 할아버지는 그에게 50위안을 쥐어주었다. 나에게 “애를 나오게 하고 대신 나를 들여보내 줘. 난 늙었잖아.”라고 말했다.

인터뷰가 끝날 때쯤, 그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앞둔 딸에게 몇 마디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러라고 했다.

그는 “잠시만요.”하고 고개를 잠깐 숙였다. 이를 꼭 물고 있어 두 볼이 팽팽해졌다. 고개를 들어 웃으면서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아들.....”하고 말했다. 고개를 돌려 나에게 “저는 딸을 아들이라고 불러요.”라고 설명해 줬다.

“아들,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일하는 거 잘 도와줘야 해.....” 그의 입술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여전히 웃으면서 “아빠가 해준 말 기억해야 해,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라고 말했다.

인터뷰 끝낼 시간이 다 돼서 나는 몸을 일으키면서 “몸 건강하세요. 아직 기회는 많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얼굴 살을 떨고 있었지만, 웃으면서 “네”라고 대답했다.

교도관은 그를 호송하면서 뒤돌아 나갔다. 십여 미터를 걸어 모퉁이를 도는 곳에서 날카롭고 슬프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그의 양손은 수갑을 차고 있어 눈물을 닦을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든 채 목 놓아 슬피 울 수밖에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폭발해 나온 울음소리였다.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구불구불한 교도소 복도는 그의 메아리로 가득 차 있었다.

돌아와서 우리는 온종일 편집 작업에 매달렸다. 영상을 검사할 때 아직 더빙작업이 안 돼 있어서 라오하오는 대본을 들고 화면에 맞춰 내레이션을 읽어줬다.

그중 한 장면에서 나는 그에게 “후회되세요?”라고 물어봤다.

“아니요. 노력했으니까요.”

“아직도 법을 믿나요?”

“아니요. 저는 법을 신봉해요.”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 뒤의 부분도 내레이션이었지만 읽어주는 라오하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나는 고개를 돌려 라오하오를 쳐다봤다. 그녀는 종이로 얼굴을 가리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장지에와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위엔 사장님은 우리 셋을 보더니, 장지에에게 “자넨 뉴스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감성적이야?”라고 말했다.

고개를 다시 모니터로 돌려 “이어서 보자.”라고 말했다.

영상은 농부들이 토지 징수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조용히 앉아있는 시위를 하다가 십여 명이 잡혀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사회 공공질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왜 그들을 잡아간 거죠?”라고 나는公安(公安)국장에게 물어봤다.

“저희가 예견했기 때문에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라고公安국장은 말했다.

나는 “그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사람을 잡은 거죠?”라고 그에게 물었다.

“안정을 위해서요.”라고 그는 답했다.

“안정의 전제는 법질서가 아닌가요?”

상대방은 말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이 단락의 영상은 끝났다.

위엔 사장님은 “멈춰 봐.”라고 말했다.

고개를 돌려 “자네가 계속 질문을 했어야지. 과연 이런 결과가 안정을 가져다 줄까?”라고 나에게 말했다.

어느 날 밤 하오진송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낙담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교도소에서 인터뷰한 얘기를 해줬다. “당신은 그 사람의 본보기예요.”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당신은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라는 말을 입 밖으로 뱉을 뻔했다. 잠시 멈춰 이 말은 틀리다고 생각했다. 그는 당연히 포기할 권리가 있다. 정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포기할지 안 할지 판단하세요.”라고 말했다.

얼마 안 있어 그는 상해로 갔다. 그는 불법 영업 차량 함정수사 사건의 국민 대리인이 되었다. 나는 그를 다시 인터뷰했다. 방송에서 그가 철도부에 소송을 걸었던 예전 이야기가 나왔다. 얼마 안 있어 당시 철도부 대변인 왕용핑을 인터뷰했다. 차에서 그의 동료가 나에게 “당신들은 왜 이렇게 만만찮은 사람을 인터뷰해요? 그 사람은 반정부 인사죠?”

나는 “그 사람은 조금 고집이 있고 허영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정부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가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법률문제예요. 그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법 쪽으로 그를 반박하세요.”

차 앞좌석에 앉아있던 왕용핑이 고개를 돌려 “그가 고집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라고 말했다.

나는 한 정부 관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근무지에서 철거 이주를 시행하고 있을 때 휴대용 의자를 들고 아파트 밑에 십여 일을 앉아있었다. 양쪽으로 시달렸지만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힘써 노력했다.

“이건 공공용지(公共用地) 철거 이주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공지 한 장만 붙여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애를 써요?”

그는 좀 생각하더니 “만약 어느 날 제가 사는 집이 철거된다면, 저도 한 명의 일반 국민일 뿐이니까요.”라고 대답했다.

1946년 호적(胡適)은 북경대학교에서 강연할 때 “여러분은 자유보다는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막 봤을 때 이해 못했다.

호적(胡適)은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는데, 자유는 외적인 구속에 대해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독립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자유를 쫓는데 독립적이지 못하면 여전히 노예에 불과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파벌과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독립적인 정신입니다.”라고 후스는 이어서 설명했다.

예전에 북경 교외에서 정부와 주민들 간의 심한 충돌이 일어났었다. 정부는 그곳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려고 했고, 주민들은 분명히 심한 오염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양측이 모여서 좌담할 때, 모두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소통으로는 불가능할까요?”나는 물었다.

주민 대표 황샤오산은 “정부는 반드시 짓겠다고 하고 우리는 반드시 막겠다고 했어요. 모두 ‘반드시’라는 단어만 썼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요. 아무런 조정의 여지가 없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을 조직하여 박람회장 대문 앞에서 시위했다. 그는 첫 번째 줄에 있었다. 그의 머리는 핑크스타일이었다. 양옆머리는 밀었고 가운데 머리는 솟아있었다. 맨드라미꽃처럼 염색해서 알아보기 굉장히 쉬웠다. 그는 경찰이 느긋하게 “저 노랑머리야.”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그는 빗속에서 온몸을 떨었다. “흥분인지 무서워서인지 모르겠어요.” 경찰서에서 하룻밤 있다 나와서는 그는 방법을 바꿨다. “쓰레기는 왜 소각을 하면 안 되는가”에 관한 자료를 끊임없이 각급 정부에게 건네주었고, 방송국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모두 참석했다.

정부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토론회에서 그를 알게 된 후, 그를 일본 시찰단에 참가하도록 초대했다. “이 사람은 거리에서 예쁜 아가씨를 보면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뿔어지라 쳐다봐요. 그는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에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욕하고. ‘진실’된 사람은 사귀기 편해요. 극단적이거나 선입견이 없거든요.”

일본은 국토 면적이 작아 90%의 쓰레기는 소각해야 한다. 소각장은 시내 한복판에 지어져 있었다. 들어가 참관하려면 신발을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했다. 그는 쓰레기 소각 기술은 이미 1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안정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소각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인터뷰에서 그를 욕했다. 그가 “배신”을 해서 정부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뜨거운 냄비에서 양쪽으로 구임을 당하고 있는 작은 생선과도 같았다. 그는 대항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만 해서도 안 되고 대항만 해서도 안 돼요. 그건 하나의 태도일 뿐이에요. 이유가 있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해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 자신도 반성해야 해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할지 반성해야 해요.”

그는 현재의 문제는 쓰레기 소각이 아니라 중국 쓰레기의 65%가 젖은 쓰레기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소각을 안 하면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쓰레기 매립도 지하수와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자비로 “쓰레기 탈수기”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기술로 쓰레기의 수분을 없애고 싶어 한다. “저는 건달 기질이 있어서 원래 이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전 안 갈 거예요. 여기는 제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끝까지 가보려고요. 조금 서정적으로 말할게요. 제가 어디에 있든 그곳은 중국이 될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더 이상 하지 마, 중국은 더 혼란스러워지면 안 돼.”라고 말했다.

나는 이런 우려를 이해한다. 라오하오와 나는 북경 메이리 아파트단지에서 격렬한 충돌을 목격한 적이 있다. 아파트단지에 들어갔을 때 이런 장면을 처음 봐서 놀랐었다. 단지에는 온통 빨강색 구호가 적혀있는 현수막이랑 양측을 응원하는 다른 색깔의 깃발이 걸려있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도로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먹을 휘두르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레이시아를 죽이자.”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고 레이시아는 주민위원회 주임이었

다. 그녀는 막 주민들의 관리비를 적게 내도록 걸었던 소송에서 이겼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갑자기 철수하여 전기도 끊어지고 물도 안 나왔다. 어떤 주민들은 주민위원회에서 소송을 걸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도로에 모여서 레이시아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방송 카메라 렌즈를 비추자 십여 명이 모여들었다.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 거의 레이시아의 얼굴에 닿을 듯했다. 큰소리로 “그들의 가족을 벗겨버리자.”며 소리를 질렀다.

레이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있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듣고만 있었다.

그녀를 마주 보고 있는 가장 앞에 서 있는 중년 남자는 “무슨 근거로 소송을 걸어서 우리 생활에 지장을 줘? 우리는 그 돈 내고 싶고 낼 수 있어. 그게 민심이야.”라고 말했다.

레이시아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대다수 사람이 결정한 일이어서 반대 하시더라도 소수의 사람은 어느 정도는 따라야 해요. 그것이 올바른 이치예요. 당시 투표함에 의견을 반영할 때 반대는 10표밖에 없었어요. 900여 세대 중 800여 세대가 찬성했어요. 이게 민심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중년 남자는 그들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민 회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해 무효가 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 인원은 과반이 넘었고 소송에서도 이겼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리에서 “주민위원회를 무너뜨리자”라며 외쳐댔다. 주민위원회 두핑은 “진정한 민주는 투표함에서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지 길에서 하는 게 아니예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리의 소리는 너무 컸다. 카메라 화면 속에서 주민위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찬성자의 뺨을 때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시위행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나도 직접 목격한건 처음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 이성이 폭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지 꿇지 않을지.....

나중에 나는 결과를 좌우한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은, 양측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파트 주민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거리의 소음 때문에 깨어나 점점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관문 앞에 그들이 응원하는 쪽의 깃발을 꽂고, 아파트 단지 간담회를 열고, 게시판에 자신들의 의견을 붙여놓았다. 이 사람들은 공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었다. 2위안의 관리비 때문에 자기의 사적인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았었다.

우리는 그들 중 한 명을 인터뷰했다. 그는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만큼의 시간이나 정신이나 체력도 없었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한 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도 많고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침묵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것이 아닌 모두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투표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그는 말했다.

2006년 10월 28일 메이리 아파트단지는 제5차 주민대표대회 선거를 진행했다. 1378세대에서 1094세대가 투표를 했다. 3개 항목의 투표결과는 모두 600 몇 대 400 몇이었다. 주민위원회 연임을 결정했고, 기존 관리사무소와 연장을 하지 않고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관리사무소를 새로 정하였다.

이런 결과는 많은 사람이 봤을 때 많은 시간과 정신과 체력을 낭비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거리의 안정을 되찾아주었다.

2008년 미국 대선 전날 밤 마침 미국에 있었다.

워싱턴 박물관의 나이가 지긋한 흑인 보안관은 내가 기자인 것을 알고는 갑자기 “잠시만요.”라고 말했다.

그는 손살같이 달려가 신문을 한 장 가져와 내게 보여주었다. “여기 보세요. 흑인 신랑이 백인 경찰에게 총살을 당했어요. 우리는 시위행진을 하러 나갈 거예요.”

요.”

“무엇을 요구할 건가요?”

“흑인만의 나라를 수립하는 거요.”

나는 어안이 빙빙해서 “정말요?”라고 물었다. 그는 내가 믿지 않아 하자 “잠시만요.” 하더니 거리에서 세 무리의 사람을 그 자리에서 불러 모았다. 한 무리는 젊은 가족이었고, 한 무리는 이어폰 줄을 목에 걸치고 있는 2명의 소녀, 또 한 무리는 노년 부부였다. 모두 흑인이었다.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여러분도 흑인의 나라를 설립하고 싶지요?”

“당연하죠.” 6명은 한 치의 굽뎀도 없이 대답했다. “저희가 사는 구역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미국은 여전히 백인의 나라예요. 저희 것이 아닌.”

“오바마가 있잖아요?”

“그는 백인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라며 연세가 있는 흑인이 말했다.

뜻밖에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흑인은 말을 하면서 울었다. 그는 그가 사는 구역의 경찰들이 무전기에서 흑인들을 부르는 코드도 “non human being”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나는 60년대의 미국 민권운동과 <미국 민권법>은 이미 순조롭게 인종차별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했고, 오바마가 정권을 잡으면 흑인들은 더 마음껏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모두 내 상상과 책에서 본 관념일 뿐이었다.

이 세상에는 한 번에 해결되는 답은 없다. 세상에 관한 완벽한 스키마도 없다. 한사람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한 번의 소송으로 현실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식하거나 지능적으로 게으른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세상에도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규칙은 존재한다.

나는 나이가 지긋한 흑인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폭력으로 해결할 건가요?” 그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폭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혜는 가능하죠.”

“분노도 하나의 힘이 아니요?”

“맞아요. 하지만 위험한 힘이죠.”

“그럼 왜 이런 힘을 택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법이 있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중국에도 있다 그 법이란 것이.....

하오진송을 인터뷰할 때 나는 그에게 “누구의 명분으로 소송을 거나요?”라고 물었다.

“시민이요.”

“시민과 일반 백성은 뭐가 다르죠?”

“독립적으로 자기의 관점을 표현하되 오만하지 않고, 정치에 복종하되 쫓대 없이 비굴하지 않은 거요.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약자를 보았을 때 동정할 수 있고, 사악한 것을 보았을 때 분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지막 질문을 그에게 물었다. “어떤 세상을 원하세요?”

“헌법이 저에게 준 그 세상을 원합니다.” 당시 34살인 젊은 하오진송이 대답했다.

